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226-0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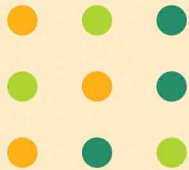


목 차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 -

I	교육과정의 이해	01
	1. 교육과정의 개념	03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08
	3.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12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8
	5.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26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9
	1. 추구하는 인간상	31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8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44
III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9
	1. 기본 사항	51
	2.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59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65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77

Ⅳ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81
1. 기본 사항	83
2. 교수·학습	98
3. 평가	105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110
Ⅴ 학교 교육과정 지원	115
1. 국가 수준의 지원	117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122
〈부록 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141
〈부록 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176
〈부록 Ⅲ〉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206
〈부록 Ⅳ〉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224
참고문헌	265



I . 교육과정의 이해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敎育課程)이라는 말은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을 지식의 전달로 보면 교육과정은 전달하려는 지식 또는 그 한 단위로서의 교과들의 체계로 파악할 수 있고 그와는 달리 교육을 인격의 함양 또는 바람직한 능력·특성들의 형성으로 보면 교육과정도 그러한 인격 또는 능력·특성 형성에 최적한 학생들의 경험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교과 또는 경험들의 계획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계획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 결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를 포함한다. 즉,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는 점에서 법제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公布)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문서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혹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¹⁾

1) 교육과정의 명칭은 전면 개정을 할 경우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고,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등과 같이 개정년도를 밝혀 명명하였다.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처음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로 공포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장 총칙의 제2조. 그 이후,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제6차 교육과정²⁾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 즉 교육부 장관이 법령에 의거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이 관련된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령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³⁾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적 입장은 이후 개정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의미를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 설계도이며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
- 2)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중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 6. 30.), 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이다.
- 3)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대로 강조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 속에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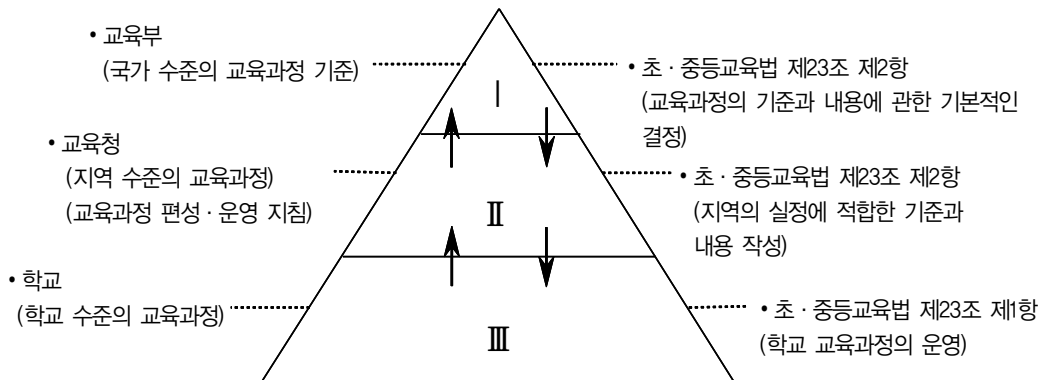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상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미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나. 교육과정의 수준

1)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수준 분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그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 결정 과정이 중앙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 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교육과정 통제 방식은 대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지역(시·도 교육청)이 주도하는 방식, 학교와 교사들이 주도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주로 교육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을 채택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지역화·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분권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에 따른 각 수준은 [그림 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Ⅰ)’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지역 수준 교육과정(Ⅱ)’이 있다. 또한,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창출한 ‘학교 교육과정(Ⅲ)’이 있다. 특히 (Ⅰ)과 (Ⅱ)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교육과정의 수준

출처: 이미숙 외(2013: 55)

2)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⁴⁾에 입각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및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게 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동시에 이 기준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므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지역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해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의 준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4)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 일부 개정 2016. 2. 3.)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제시된 이러한 근거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위로부터 부여받은 교육과정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받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에 국한된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자로도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천자인 교사가 바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고 개발자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실천자이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학생·교원 실태, 교육 시설·설비·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도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은 크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법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였다.

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명시되어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

1) 중학교의 교육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41조는 중학교의 교육 목적이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학교 교육 목표는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2) 교육과정 및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는 중학교의 기본 교과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3)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그밖에 학교의 학기·수업 일수·학급 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46조(학급편성),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9조(수업시각) 등으로 정하고 있다.

4) 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5)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6) 수업연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42조에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7) 교과용 도서의 사용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8)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립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9)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다.

10) 학교 규칙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11) 학생 자치 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활동이 권장,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12)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동법 제25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라. 기타 법령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학교보건법, 저작권법, 과학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주요 사항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국가 교육과정 기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법적 기준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중학교의 교육 목적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41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학사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
학급 편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학교의 휴업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수업 운영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8조
교류학습,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
진급과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중학교 수업연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42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교과용 도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학생 자치 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교 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 2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3.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는 일반적으로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요목기, 그리고 제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 과정의 변천시기별로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⁵⁾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청은 초·중등학교 개교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그 해 9월 17일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로 일반명령 제 4호를 공포했다. 그들은 ‘새 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표방하고 우선 기존 교육과정에서 ‘수신’을 폐지하고 ‘공민’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본어, 일본 역사 대신 우리말, 우리글과 우리 역사를 복원하여 중학교의 경우 공민, 국어, 지리·역사, 수학, 물리·화학·생물,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주 32-35시간씩 가르치도록 했다. 교수 용어도 당연히 한국어를 사용하게 했다.

나. 교수요목기(1946)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이 없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중등학교의 경우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각 교과목의 교수요목 제정과 함께 1946년 9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이 공포되었다. 비록 그 명칭은 ‘교수요목’ ‘교과과정표’였지만, 미군정 하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교과통합, 선택 과목·특수과목 개설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과통합과 관련하여 공민, 지리·역사가 ‘사회생활’로, 물리·화학·생물이 ‘일반과학’으로, 가사·재봉·수예·실업 등이 ‘실과’와 ‘수공’으로, 습자·도화가 ‘미술’로 통합되어 이후의 교과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필수과목에는 국어, 사회생활, 수학, 일반과학, 체육·보건, 실과, 음악 등 7과목만 포함되어 있고 외국어, 미술 등은 선택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당 학습 시간 수도 39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5)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법령으로 고시되고 몇 년 후에 학교에 적용된다. 이하 각 개정기의 연도는 총론의 고시 연도를 가리킨다.

다. 제1차 교육과정(1954)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손으로 만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제정의 요구가 높아졌으나 6·25 전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1953년 부산 피난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어 1954년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 35호)이, 1955년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 45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교육과정이라 해서 ‘제1차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 ‘교과과정’이란 명칭으로 흔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교육사절단의 영향으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사조가 반영되었다. 이에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전인교육을 표방하여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교과에 ‘미술’이 추가되어 모두 8개 교과가 되었다. 전쟁 후의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반공·도의 교육이 강조되었고, 실업 교과들이 실업·가정으로 통합되어 매우 강화되었다. 주당 학습 시간 수도 34~38시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라. 제2차 교육과정(1963)

미국교육사절단의 활동으로 경험중심·생활중심 교육과정 사조가 대세를 이루어 1963년 문교부령 제 119호 - 제 122호로 경험중심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제정·공포되었다. 교육과정이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가지는 모든 학습 경험’으로 규정되고 교육과정 내용에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이 강조되었으며 그 조직·운영에서 합리성, 지역성이 중시되었다. 또한, 박정희 군사 정부의 요구가 반영되어 반공·도덕 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활동으로 구성되고 교과활동은 종래 선택 교과였던 외국어(영어)를 포함시켜 모두 9개 교과의 필수 교과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사회생활 교과의 명칭이 ‘사회’로 바뀌었다. 1교시의 수업 시간도 종래 50분 단위에서 45분 단위로 감축되었다.

마. 제3차 교육과정(1973)

제3차 교육과정은 1968년에 선포된 국민 교육헌장의 이념과 당시의 학문중심 교육과정 사조가 반영되어 1973년, 1974년에 문교부령 제 310호, 제 325호, 제 350호로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다. 국민 교육헌장에 나타난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 협동 정신, 국민 정신 등과 학문중심 교육과정 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와 탐구학습,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① 자아실현, ② 국가 발전, ③ 민주적 가치 등을 교육과정 일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① 도덕을 교과에 편입시켜 강화하고, ② 국사를 사회과에서 분리하여 독립시켰으며, ③ 실업·가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 필수에서 남학생에게는 ‘기술’을, 여학생에게는 ‘가정’을 이수하게 했다. ④ ‘한문’은 이미 1972년의 부분 개정(문교부령 제 300호)에서 교과에 포함되어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재구성되고 학생들의 이수 교과수가 13개로 대폭 늘어났다. 수업 방법으로 탐구와 발견이 크게 강조되었다.

바. 제4차 교육과정(1981)

제4차 교육과정은 5공화국의 출범과 7·30 교육개혁 조치 등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R&D)형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특정 교육과정 사조에 얽매이지 않는 종합적 교육과정 모형을 제시하려고 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의 ① 너무 어려운 교육 내용, ② 과도한 학습 내용, ③ 분과주의 등을 극복하고 ①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② 전인교육의 강화, ③ 과학 기술교육의 심화, ④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등을 강조했다. 실제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 2 학년 과정에서의 통합교육(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나, 중학교에서는 ‘자유선택’의 신설, 실업·가정에서의 이수시기 조정, 2·3학년의 이수 시간 축소 등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사. 제5차 교육과정(1987)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를 목적으로 1987년 문교부 고시 제 87-7호, 제87-9호, 제88-7호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제4차 교육과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① 기초교육의 강화, ②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③ 특별활동 강화, ④ 특수학급 운영지침 명시 등이 시도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에 있어 ‘실업·가정’에서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술·가정 과목의 신설, 3학년의 수학과 과학 시간 증가, 자유 선택 시간 증가 등의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 시행에서 지역화가 강조되었다.

아. 제6차 교육과정(1992)

제6차 교육과정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그와는 별개의 교육과정 개정·연구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어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제1992-16호, 제1992-19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의 분권화·다양화·자율화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을 종래와는 달리, 교육부는 국가 수준에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만 제시하고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그 획일성·경직성을 극복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자율화·지역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으나 중학교에 있어서도 우선 ① 실업·가정 영역을 ‘가정’ ‘기술·산업’으로 재구성하여 남녀 공통으로 이수하게 하고, ② ‘국사’가 ‘사회’에 통합되었으며, ③ 종래 필수교과였던 한문과 컴퓨터, 환경 등이 선택 교과로 바뀌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연간 수업 시간 수도 1156시간으로 감축되었다.

자. 제7차 교육과정(1997)

제7차 교육과정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특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어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제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다. 무엇보다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적으로 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② 교과군 개념 도입, ③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④ 재량활동의 신설·확대, ⑤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 조정, ⑥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하여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의 10개 교과만 포함시켰으며,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학·영어와 국어·사회·과학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종래 중학교의 선택교과는 재량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지역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차.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그 동안의 국가·사회적 요구, 주5일 수업 제 시행 등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7년 2월 부분적인 총론 개정이 이루어졌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중학교의 경우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에서 ‘사회’ ‘역사’의 과목 분화가 이루어져 각각에 별도의 학년과 시간이 배당되고, ② 수준별 교육과정이 수준별 수업으로 바뀌고 ‘단계형’ ‘심화 보충형’ 등의 구분이 폐지되었으며, ③ 집중이수제가 강화되어 학기별로도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졌고, ④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재량활동 시간 수가 감축되었다.

카.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후로 이루어진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2008년에 수행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⁶⁾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구상안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 발전 목표 재설정,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학교교육 운영의 자율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체제의 효율성 제고 등의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①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운영하고 초·중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한다. ②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한다. ③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조정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전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기초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혁신한다. ④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 교육과

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통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창의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미래형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세계적인 사람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을 뜻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양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실 개혁을 유도한다. ⑤ 학습 부담 및 과도한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한다. ⑥ 그밖에,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이 기초·기본 교육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 23일 고시되었고(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후 학교 현장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중학교와 관련된 부분 개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이다.

- 1) 2011년 8월 9일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그에 따른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후속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2012년 7월 9일에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총론 및 일부 교과 교육과정(국어, 사회, 도덕)을 개정하였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더불어 체육 활동의 효과에 주목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신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 3) 2012년 12월 7일에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2항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c).
- 4) 2013년 12월 18일에는 중학교에서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3).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 변화, 과학 기술과 학문의 발전, 교육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 교육 내·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을 이어받아 한편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 중의 하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이다. 2008년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 계획(2009~2013)’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이어 받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국가 융합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융합기술 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래 사회가 융합기술이 주도하는 산업구조를 갖춘 사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즉 이른바 문과와 이과 사이의 과도한 칸막이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이과 통합’ 논의(교육부, 2013; 2014)를 계기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태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이 되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 시점에서 강조되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 모색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에 걸쳐 진행된 네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박순경 외, 2014) 등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실태를 점검하며 그 발전 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요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을 화두로 삼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하였다(김경자 외, 2015: 15-16).

나.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황규호, 2015). 전자가 문·이과 칸막이 해소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비전이라면 후자는 그동안 추진된 교육과정 개정의 연속선 상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과제를 반영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주안점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 기간을 통하여 여러 교과 영역의 균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목 편제를 개발한다. 둘째,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영역별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개발하며, 사회과 및 과학과의 공통 과목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등 융합적인 과목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문·이과 칸막이를 야기하고 있는 수능 체제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개발한다.

그러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을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부과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선택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맞춤형 선택 학습 지원은 또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는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여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단위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심화·보충학습 및 진로탐색·체험을 지원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와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한다.

2)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구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과 함께,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기본 과제를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학습 경험의 질 개선’으로 요약하였다. 학습 경험의 질과 관련된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편 지식의 암기 위주 교육과 문제풀이 중심 교육의 문제, 과도한 학습량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학습 부담 증가 문제, 국제 평가에서의 높은 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대한 흥미도나 자신감 등 정의적 영역의 지표가 낮다는 문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학습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은 학습의 양과 결과보다 학습의 질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교육,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소양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길러주는 교육, 자기 성장·자기 발전의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을 증진하는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은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 학습 내용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분절적 단편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학습량 과다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학습 내용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 조직 방식을 개선하며, 특히 세부 학습 영역을 아우르는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교과 내·교과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셋째, 교과별 탐구 역량과 사고 역량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안내한다.

다.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개선하며, 학교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총론의 편제 개편보다는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문서 체제를 구조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학년군제 및 집중이수제를 교과 특성에 따라 유연화 하는 방안,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화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었다. 또한 개정된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의 방향을 기초로 교육과정 개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교과 교육과정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생기게 되는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가 교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육과정 포럼, 공청회, 정책 연구진 합동 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수차례 운영하였다.

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등학교 전 교육 기간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이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기초 소양 함양에 관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교과 교육을 비롯한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균형 있는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이 강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 편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독서교육, 연극교육 강화 등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영역별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재도입하며 사회 및 과학 교과군의 공통 과목으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융합 과목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문·이과 칸막이를 야기하고 있는 수능 체제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개발하였다.

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기초 소양 함양을 이유로 자칫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3)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으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급별 목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을 보다 명료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협력 학습, 토의·토론학습 등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4)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단순히 역량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과도한 학습량과 피상적인 학습으로는 창의융합적 사고와 핵심역량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 내용 적정화는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사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암기식 교육, 문제 풀이식 교육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 또한 여전하다. 이는 교육 내용 적정화를 단순히 양적 감축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성취기준의 개수를 표면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내용 적정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 내용 적정화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에 있다. 따라서 이번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 적정화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단순한 양의 축소에서 벗어나 소수의 핵심 개념⁷⁾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 내용의 질적 적정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구조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결정하고, 전체 학교 급을 관통하는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선정하였다. 일반화된 지식이란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원리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은 낱말의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사실들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기능이란 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화된 지식은 단순 암기가

7) 핵심 개념이란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기초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는 학습 내용의 구조를 드러내며 그 교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일반적 아이디어(*general ideas*), 빅 아이디어(*big idea*)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을 이와 같이 구조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교과별 세부 학습 내용들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세부 내용들 간의 관련성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둘째,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성을 드러내도록 구조화하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돕는다.

5)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교수·학습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이 특정 맥락에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가 교수·학습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수행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교과 내 지식 간, 영역 간, 교과 간 학습 내용을 연결하여 융합적 사고를 기르도록 강조하였다.

6)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총론의 편제 개편은 최소화하되 2009 개정 교육과정 실행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을 추구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화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안전 교육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범교과 학습은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이자 여러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이래로 점점 증가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의 수가 39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과도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39개로 나열되어 있던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구성은 유지하되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발휘하고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에서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침을 개선하였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주체인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였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학, 보건 등 관련 교과(목)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여 이론과 실천·체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군)의 경우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총 64시간) 증배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시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단,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을 신설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⁸⁾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 및 학년군 설정, 교과(군)별 20% 범위 내 시수 증감 허용, 교과 집중 이수 및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 선택 과목 및 진로 교육 활성화 등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근거 마련,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개정의 각 중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군 별 총 수업 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로 재분류되었다. 즉, 중학교의 경우 사회와 도덕은 사회/도덕 교과군으로, 과학과 기술·가정은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으로, 음악과 미술은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으로 묶임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등 총 8개의 교과(군)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수업 시수의 성격을 ‘연간 최소 수업 시수’에서 증감이 가능한 ‘기준 시수’로 전환하여 각 학교로 하여금 교과 수업 시수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 시수의 증감 범위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체육과 예술 교과는 증배만을 허용). 이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체육, 음악, 미술,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로 하여 학습을 적정화하고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년군, 교과군,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 허용, 교과 집중 이수 및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 등의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외에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선택 과목 활성화 및 진로 교육 활성화 등의 중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⁹⁾

8) 이하 2015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내용은 김정자 외(2015b)의 내용을 발췌·수정하여 제시하였다.

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은 ‘과학/기술·가정/정보’로 변경되었고, 선택 교과목인 ‘환경과 녹색성장’의 명칭이 ‘환경’으로 변경된 점은 있으나 기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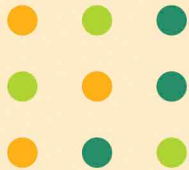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유학기제를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되, 자유학기의 취지가 자유학기 활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자유학기 전체의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한 학기만이 아니라 중학교 전체에서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그 근거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1년부터 적용되어 2013년에 전 학교 급에 확산되었음을 고려하여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가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를 가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서도 4개 영역 중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영역의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편성·운영 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4개 영역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유학기 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과학기술 소양 함양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서 중학교에서는 선택 교과의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를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에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선택 교과 시간을 조정하여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 시간 배당 기준을 34시간 증배하였다.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먼저, 앞부분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자주적인 사람

교육받은 인간은 ‘자주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자주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긍정적인 자아정체성과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여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인적 성장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 각자가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새로운 통찰력,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 새로운 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통해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는 먼저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폭넓은 기초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 능력,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능력 등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민감하게 대처하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영역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교양있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다양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공존하여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며,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히 지역 및 국가 공동체에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 지구촌 사회 속에서 잘 살기 위해, 세계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도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의 뒷부분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위와 같이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 전반에서 이 핵심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다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이외에도 학교교육에 필요한 역량은 더 있을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 관리, 기초 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진로 개발 능력, 합리적 경제 생활, 여가 선용 등의 하위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란 학습과 삶 등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루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처리’한다는 용어 역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여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성향으로서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사고 능력으로서의 융합적 사고도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사회 현상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란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어적 표현 능력(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텍스트 이해 등),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민 의식, 준법 정신, 질서 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 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정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인재상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창의성은 창의융합형 인재의 중심 가치가 되며,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융합은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으로 통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하므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인재상 등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가독성과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인재상 등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1]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인재상의 관계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함양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적 소양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인문적 소양은 자신과 타인,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판단 능력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 소양은 과학의 지식 및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 관련 문제에 반성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ECD, 2013).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은 개인이 지식을 단지 아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고등학교는 기존의 선택 교육과정에서 균형 잡힌 인문·사회·과학적 안목과 과학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도입하면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 선택 학습 강화

기초 소양을 위한 학습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의 학습 경험 제공을 의미한다면, 선택 학습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인문사회학적 안목과 과학적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유지하면서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선택 교과와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황규호 외, 2015).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내용 재구조화 및 학습량 적정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내 영역별로 소수의 핵심 개념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학습량 적정화를 이루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 적정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주로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는 차원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 아닌 교과와 근본적인 아이디어, 즉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 구조화는 각 교과와 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니며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드러내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융합적 사고 계발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지식 간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와 중요한 개념과 원리, 교과와 사고 및 탐구 기능을 학습해야 하고, 그 다음 교과 내, 교과 간 연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배워야 한다.

핵심 개념이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
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지식의 한 종류인 개념(concept)과 동의어는 아니며 교과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교과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 즉 빅 아이디어의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규칙성, 에너지, 상호작용, 관계, 다양성 등과 같은 개념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표현, 감상, 의사소통, 공감과 같이 기능적 혹은 정의적 내용들도 빅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각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을 규명하
였다. 교과 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
다. 교과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핵심 개념 및 일
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 학습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심층적 이해는 단순
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기능을 통해 가르칠 때 가능한 것이다.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기능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
생들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기능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
고 이를 다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과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교수·학습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에도
유용하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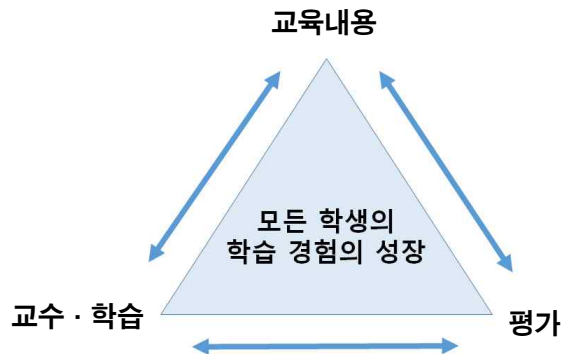
●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학습 후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성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주요 목적은 학생 스스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 경험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결과는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마. 교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교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강화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생의 학습 경험의 성장을 우선에 두고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이 확보될 때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개발뿐 아니라 실행에서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그림 II-2]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성취기준으로 진술하였다. 교과의 성취기준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 및 태도의 총체로서 학년(군)별 학습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이 특정 맥락에서 습득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고등학교 직업 교육과정 편성·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고교 졸업 후 어느 산업 분야로 취업을 하더라도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교 졸업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이나 선취업 후진학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경로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경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 이를 반영한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급별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이러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교과(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 학교에서 편성, 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이루어진다. 하위 목표 네 가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네 가지 인간상을 각 학교 급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 급별 목표의 차별성 및 위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급별 교육 목적에 중점을 두되, 앞에서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일관되도록 설정되었다.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아래와 같다.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38조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지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는 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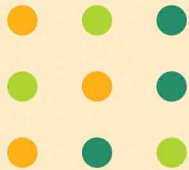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4가지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1〉 교육적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자 주 적 인 사 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1) 성숙한 자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창 의 적 인 사 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 양 있 는 사 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더 불어 사는 사 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Ⅲ.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Ⅲ.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구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통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존의 '선택 교육과정'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제를 바꾸었다. 이는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과 별도로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1〉 개정 시기별 초·중등 교육과정 편제의 구조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10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학년군 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되었던 학년군제를 유지하였다. 학년군 설정의 목적은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효율화를 기하는 데에 있다.

〈표 III-2〉 학년군 설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 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되었던 교과군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군이 일부 변경되었다.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선택 교과의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에 포함시켜 해당 교과군을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변경하였다.

〈표 III-3〉 중학교 교과(군) 설정 변경

2009 개정	8개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		↓		↓		↓		
2015 개정	8개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 교과군 설정의 이점

교과군은 교과군 내 혹은 교과군 간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연계 운영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과목별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등 수업 시수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과군 설정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간 내용 및 활동의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고 재구성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및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 및 교과군 설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며, 교과(군)의 경우 일부 변경되었다.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사 과목이 역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기초 영역에 포함됨으로써 교과(군)은 8개에서 9개가 되었다. 또한 예술 교과군에 인성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연극 과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과군 명칭도 ‘예술(음악/미술)’에서 ‘예술’로 변경되었다.

[표 III-4]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과 영역 및 교과(군) 변경

2009 개정 교육과정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8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음악/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2015 개정 교육과정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9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음악/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한편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하여 특정 교과 중심의 교육이 아닌 균형 있는 학습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표를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의 단위 배당 기준표와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 교과의 구분 변경 및 공통 과목의 신설

고등학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으나 그 세부 내용에 변화가 있다. 보통 교과에는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라면,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심화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과Ⅰ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과Ⅱ로 구분된다.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교과(목) 집중이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되었던 교과(목) 집중이수는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보고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여건, 학교 급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점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양대 영역 중 하나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하여 신설한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구조(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며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 1)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창의적 체험활동은 핵심역량의 함양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 및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주체는 학교이며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주제에 따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 활동’ 영역의 ‘창의주제활동’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 예술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교과(군)에서 충실하게 다루지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39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 삭제, 통합 등을 통해 10개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안전·건강 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즉 자연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보건 및 성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 등을 체육, 과학, 기술·가정 등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 교육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 전통윤리를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 교육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익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민주 시민 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권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며, 양성 평등, 노동 인권 존중 등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 학생 유입 확대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활동을 강화

하고, 세계 시민교육 및 국제 이해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통일 교육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게 하고, 법교과적으로 국가 상징, 한국문화사 교육, 호국보훈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독도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경제·금융 교육은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창업(기업가)정신, 복지와 세금·금융 생활·지적 재산권 등을 학습하여 합리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에너지, 해양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계기 교육

계기 교육은 시기별, 계절별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계기 교육은 교과협의회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교수·학습 계획과 학습 자료를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또한, 계기 교육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기 교육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계기 교육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가. 편제

-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는 국가 교육과정 상에서 제시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보다 학교의 자율권을 더 많이 준 영역이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영역 내에서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계획·실행할 수 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예컨대,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 중학교 교과(군)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8개의 교과(군)로 구성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국가·사회적 요구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어 선택 교과의 과목이었던 ‘정보’가 기존의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에 추가되어 해당 교과군 명칭이 ‘과학/기술·가정/정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정보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 중학교 선택 교과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하며,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 명칭이 ‘환경’으로 변경되고, ‘정보’가 선택 교과에서 제외되었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교육부, 2015c: 5)을 목표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은 2009 개정의 4개 영역(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유지하며, 각 영역의 하위 활동을 일부 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단위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 활동의 변화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10) 창의적 체험활동 고시문과 해설서는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go.kr>)의 교육과정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표 Ⅲ-5〉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하위 활동의 변화 내용

영역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율 활동	적응 활동 자치 활동 행사 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치·적응 활동 창의주제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	예술·체육 활동 학술문화 활동 실습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봉사 활동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	자기 이해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 등

Q: 선택 교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을 편성하였다면 그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편성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선택 교과목 '진로와 직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은 별개의 활동이므로 '진로와 직업'의 과목 편성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 편성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나. 시간 배당 기준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간 배당 기준은 <표 III-6>와 같다.

<표 III-6>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교육부, 2015)

구 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 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 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1시간 수업의 의미

중학교에서의 수업은 ‘시수제’로 운영되며,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및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경우에 따라 1시간 수업은 45분에서 증감하여 운영하거나 블록 타임제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시간 수업을 45분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 감축된 시간은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 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 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수의 의미

중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수업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와 ‘기준 수업 시수’의 이원적 제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3년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의미하며, 학년군 및 교과(군)별로 배당된 시간은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다. (모든 중학교는 3년 간의 최소 수업 시수인 3,366시간 이상을 반드시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최소 필수 시수가 아닌 기준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을 통해 보다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단, 어느 교과(군)에서 20%를 감축한다면 감축한 분량을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하여 총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단위 학교의 재량으로 위에 제시된 총 수업 시수(3,366시간) 이상으로 수업 시수를 편성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정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역별 시간 배당 결정권을 단위 학교에 부여하였다. 학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중 학교 중점 영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당 기준에 제시된 시간 외에 별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시간은 확보된 시간에서 자율적으로 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Q: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에 대한 시간 배당은 동등하게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4개 영역에 대한 시간 배당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 정보 과목의 운영

선택 교과에 있던 ‘정보’ 과목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의 국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개편되어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선택 교과의 3년간 기준 수업 시간이 204시간에서 170(34 감축)시간으로 줄어들고, 대신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의 기준 수업 시간은 646시간에서 680(34 증가)시간으로 증배되었다.

Q: ‘정보는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정보 교육과정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해야 하므로 학교는 최소 34시간을 확보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 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안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교과(군)·학년(군)의 적용, 다양한 선택 과목의 개설, 교과목별 20% 범위 내 증감 허용, 교과목 집중이수제 실시 등에 따라 학교 여건과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에 기반을 두어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자유학기제의 운영 시기, 교과목별 이수 시간과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는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Q: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항은 변경할 수 있나요?

A: 불가피한 경우 변경할 수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 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을 고려해 변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학교 교육과정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또한 변경 사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교과(군) 이수 시기 및 수업 시수 자율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중점 및 목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학생 적성과 학습 능력에 따라 교과(군)별 이수 시기 및 수업 시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교는 각 학년별로 고르게 인성 교육을 추진할 중심 교과(군)를 편성하고, 그 수업 시수를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 학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따라 인문·사회·과학기술 관련 교과(군)를 학년별로 고르게 편성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동일하게 문화 예술 교육 또는 진로 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학교도 교과(군)별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를 조정해 그 학교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한편, 교과(군) 이수 시기의 자율화로 특정 교과를 배우지 않게 되는 시기에는 해당 교과의 교육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종 활동과 연계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 학기 중, ‘음악’, ‘미술’을 편성하지 않은 학기가 있다면 미 편성된 학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 허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의 경직성과 폐쇄성 탈피,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기준 수업 시수의 증감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반드시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지리적, 지역적, 사회적 여건과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 증감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 편성 시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특히, 교과(군)별 시수 20% 범위 내 감축 시에는 해당 교과(군)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정 교과(군)의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단위 재구성, 교육과정 통합·압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생략하여 가르쳐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하더라도 학생들이 해당 교과(군)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허용된다면, 한 교과군 내 교과목별 증감 기준은 따로 없나요?

A: 동일 교과군 내 교과목별 별도의 증감 기준은 없지만, 균형 있는 학습을 위하여 특정 교과목의 지나친 증배나 감축 운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집중이수의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기당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이 8개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학기를 분기별로 나누어 편성하더라도 한 학기의 이수 과목 수는 8과목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에 한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Q: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 이외에도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교과목이 또 있나요?

A: 선택 교과목 중 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과목 등과 같이 교양 과목의 성격을 가지는 과목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전입 학생 미이수 교과목의 학습 결손 보충

집중이수 실시로 인해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미이수하거나 중복 이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할 교육청과 학교는 전입 학생의 미이수 교과목 이수를 위한 ‘보충 학습 과정’ 등을 개설하여 학생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전입 학생의 교과목 미이수에 따른 학습 결손 보충의 구체적 방법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미이수 과목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관할 교육청은 미이수·중복 이수 교과목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때 학적 변동 학생의 학교·학급 배정 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을 고려하여 전입 학교를 안내하거나, 가급적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교에 배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 되도록 한다.

● 선택 과목의 개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시·도 교육청별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학생·학부모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택 과목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새로운 선택 과목의 개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즉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외에도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4가지 영역을 모든 학년, 모든 학기에 동일하게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년별, 학기별로 특정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편성·운영하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제 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Q: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자유학기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편성함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이와 유사한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목적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 성찰 및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쟁 위주의 교육 대신 자기주도적 학습 및 창의성·인성 등의 미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9)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의 선정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야 하며, 학교와 지역의 특성, 체험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9)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 시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이때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교육부, 2015d)에 의거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에 따른 ‘자유학기 활동’을 일정 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

9)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 자유학기 활동 운영

자유학기에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흥미와 관심사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운영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제공하여 자기 성찰 및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희망과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편성·운영한다. 각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7〉 자유학기 활동의 세부 내용(교육부, 2015d)

구분	내용	목적·성격	학습내용	운영방법
진로 탐색 활동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학습 기회 제공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진로·직업 관련 내용	학생 희망 선택
주제 선택 활동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중심의 인문사회, 탐구, 교양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학습 기회 제공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공동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발적, 자율적인 학생 중심 활동	자치적, 자율적 활동 기회 제공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예술·체육 활동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 기회 제공	문화, 음악, 미술, 체육 관련 내용	

Q: 자유학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자유학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을 자유학기 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활동은 자유학기의 진로 탐색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은 자유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9)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 자유학기의 교수·학습 방법

자유학기의 수업은 기존의 교과 지식 전달 위주, 교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참여형·활동형으로 수업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유학기의 수업 방법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비판적·분석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함으로써 창의적·주도적 학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지향함으로써 인지적 측면과 더불어 정의적 측면의 발달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 간, 교과 내 협력을 통한 융합·연계형 수업 방식을 지향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하여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9)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자유학기의 평가 방향

자유학기의 평가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수·학습 및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체험학습과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 등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학습 성취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을 학교별 실정에 맞도록 마련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학부모 등에게 충분히 공지한 후 시행한다. 이때 세부적인 평가 방안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이를 통해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형성평가와 수행평가를 강화하고, 학생의 교과에 대한 태도와 흥미, 가치관, 동기, 인성 등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력과 배려의 학습문화를 조성한다.

9)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 자유학기에서 진로 탐색 및 설계의 지원

자유학기 시기에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존 학교 체제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등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험처를 개방하거나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업무 협약(MOU) 등을 통해 지자체나 학교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체험 및 진로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중앙-광역-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9)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자유학과 타 학기·학년 간 연계의 필요성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교육의 변화는 초등학교의 진로 인식 단계, 중학교의 진로 탐색 단계, 고등학교의 진로 설계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발·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자기주도 창의학습 및 미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학기·타학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도입 취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 폭력의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입한 스포츠 활동이다. 이는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부분 개정의 내용을 대표하는 지침 중 하나로, 2012년 7월 개정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을 통하여 2012년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 10)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편성 시 유의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교육과정 편제 상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매 학기에 편성하며,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학교는 그 성격에 비취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만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내 동아리 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구분하여 편성·운영해야 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편성 방법

첫째, 교과(군)별 시수 감축을 통한 편성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준 시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협의에서 정한 감축 교과(군)의 시수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순증하는 방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최소 시수인 306 시간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총 136시간)을 더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연간 68시간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Q: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 감축한 분량을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10)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 방법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입생은 입학 전 또는 학년 초, 재학생은 이전 학년말(학기말)에 학생 선호 종목 조사를 실시하여 활동 종목과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활동 시간은 특정 요일을 정하여 매주 또는 격주제, 집중요일제 등 학년별이나 학년 그룹별 또는 무학년제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 1학년은 매주 목요일 4교시, 2학년은 5교시, 3학년은 6·7교시와 같이 동 학년 전체를 특정 요일의 동일 시간대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편성·운영하거나, 학년 전체를 무학년제로 하여 종목이나 프로그램별로 특정 요일의 동일 시간대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년 전체가 동시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실시하기가 어려우므로 같은 학년의 일부 학급을 그룹으로 묶어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학년 1·5반은 월요일 5교시에, 6·10반은 월요일 6교시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은 다른 활동들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 즉 체육 정규수업 및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 방과 후학교, 토요스포츠클럽 등과 연계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일한 종목을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연계 운영하여 그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으며, 또는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종목을 개설하여 선택권 보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따른다. 이때 시·도 교육청은 중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범주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국립학교의 교육과정

국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의 경우,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부터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시·도 교육청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모두 편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위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방송통신중학교의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 2항에 의거 설립된 방송통신중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방송통신중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학교 출석 수업 일수 등을 다음과 같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①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2,65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학교 출석수업일수를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연간 20일 이상으로 하였다.

일반 중학교의 3년간의 최소 수업 시간이 3,366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연간 714시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원격수업)이 주된 방식이지만 최소 출석 일수를 연간 20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 부담을 줄이는 등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의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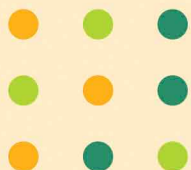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특성화 학교 및 자율 학교 등으로 지정된 중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지만 그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일정 정도 부여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를 따라야 하며, 시·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 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현행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구학교에 관한 규정(교육부령)'에 따른다.



Ⅳ.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 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핵심 요소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당해 학교에서 구체적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 ②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설계도이다.
- ③ 학교 교육과정은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 있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목적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첫째,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 가공하여 실천하기에 적합한 실행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학습자를 철저하게 맞추어 가는 교과서 중심 체제와는 달리 학습자를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에 자율권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 지침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이 없어지고 경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하여 특색 있게 구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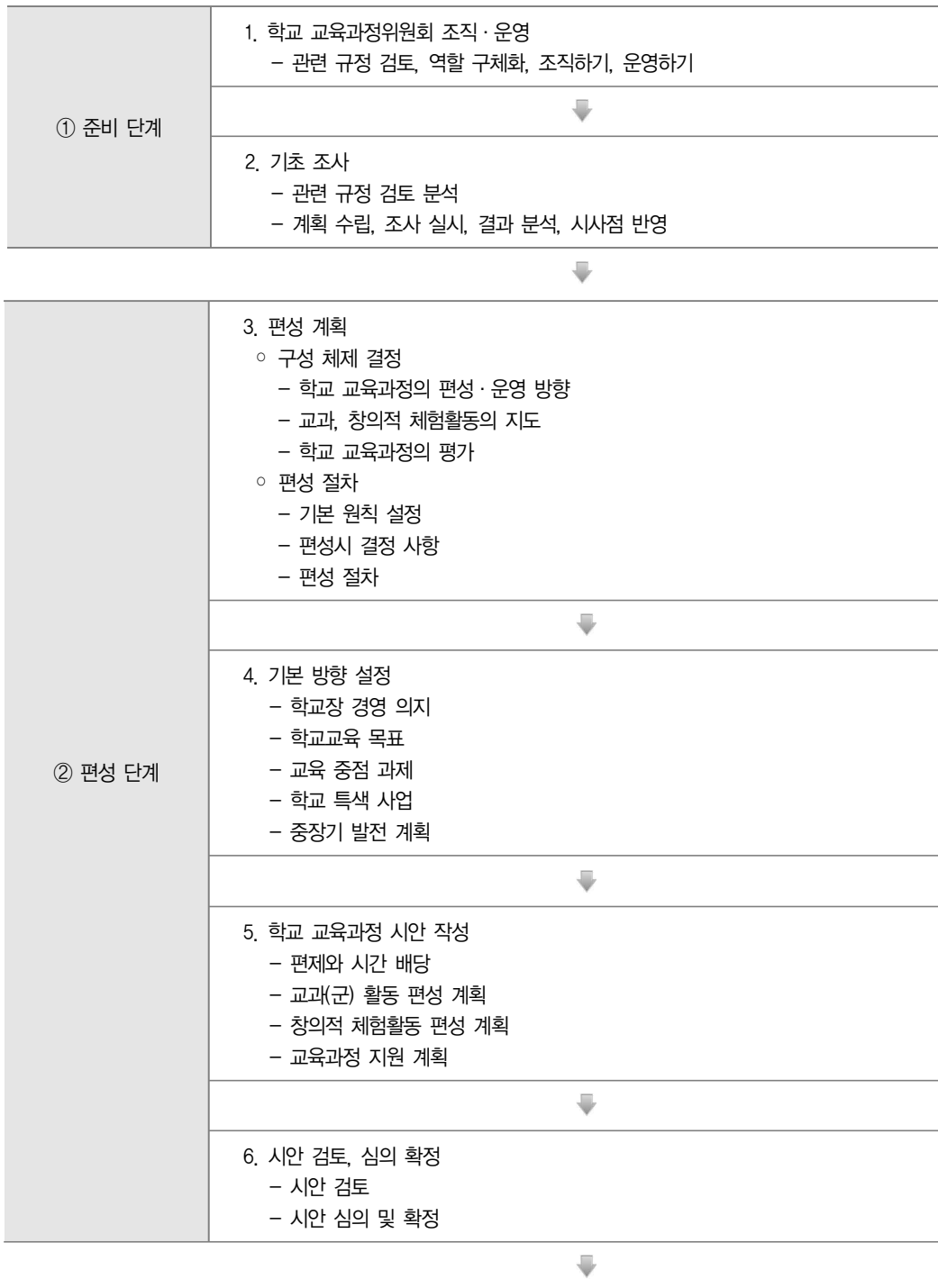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학교교육 목표, 당해 연도 교육의 중점이 드러나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중점과 연간 지도, 평가, 운영 방식이나 실천 방안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성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결정해야 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절차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① 준비 단계, ② 편성 단계, ③ 운영 단계, ④ 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절차



③ 운영 단계	7. 교과 운영 - 교과 시수 증배 운영 - 교과 시수 감축 운영 - 교과(군) 집중 이수제 - 블록타임제(Block Time) 운영 - 수준별 수업
	↓
	8.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및 목표, 유의점 파악 - 내용 및 운영 방법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사례 파악 활용
	↓
	9. 범교과 학습 운영 - 범교과 학습 운영 방법 -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제
④ 평가 단계	↓
	10. 운영 관련 기타 사항 - 특별 보충 수업 - 귀국자,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돌봄 교실 운영 - 교육과정 변경 운영
	↓
④ 평가 단계	11.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 학교 교육과정 평가 - 학교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 학교 교육과정 기본 계획 - 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및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지원 체제 ○ 학년(군) 학급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과정 지원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 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근거하여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교과별 학년(군) 목표 결정

- 각 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학습자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년(군)별 목표를 결정한다.
- 학년(군)별 목표의 수준, 목표 수, 설정 영역 등은 그 학교의 학생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단위별 목표를 근거로 구체화한다.

② 교과별, 학년별 교육 내용의 선정

-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 내용을 구체화한다.
- 교육 내용을 특성화, 보완, 통합하는 작업을 한다.
- 학생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 경험 제공 계획을 포함한다.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학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은 종래의 국가 주도적인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해야 한다.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하고, 적성과 진로 및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량권을 갖게 된 각 학교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신념, 그리고 전 교직원의 공동

사고와 참여 속에 창의성을 발휘해 특색 있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주체는 교사이다. 이에 교사는 교육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열린 사고를 갖고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편성에 동참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은 교원들의 재량권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함이므로 모든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능동적,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 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는 학부모는 물론, 지구 자율장학협의회,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교육과정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교원 양성 대학 교수, 지역 교육 관련 단체 및 교육 전문 기관의 연구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여건을 다각적인 각도로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조언과 위원들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이 자율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되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심의를 맡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실천을 직접 담당하는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가 상호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교원 위원은 담당 업무별, 교과별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회의 주제에 따라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위원은 자녀의 학년별, 성별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해야 학생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시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경우,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현장 실습 등이 이루어져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 통합교육 실시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학급¹¹⁾ 또는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¹²⁾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통합학급에서 모든 시간을 교육 받거나(완전 통합교육), 특정 시간에만 특수학급에 가는 경우(부분 통합교육), 그리고 특수학급에서 모든 시간을 교육 받지만 주요 학교 행사에는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어느 경우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해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

1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초·중등학교의 일반학급을 의미한다.

12)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으로 또는 수시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교육 계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 통합교육계획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여하여 협의할 사항으로는 각종 학교 행사나 현장체험 활동(현장실습 포함) 계획 수립, 시간표 작성, 통합학급 내에서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특수학급 교육 활동 NEIS 기록 혹은 반영 방법,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관련 사항,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일반교육과정의 연계 및 적용 방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구안과 적용 방안 등이 있다. 학교는 이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학교 전체 차원은 물론, 학년별 혹은 각 학급별로 협력과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고려 사항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포함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경우에 학생 실태에 비추어 재구성·조정·통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지도 순서·시간을 조정하거나 계절·행사와 연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나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설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① 교육 내용별 소재의 결정

- 교육 내용별로 지역과 학교에 적절한 수업 소재를 선택·결정한다.
- 소재 선정 시에는 학습자와 친근한 것, 간단한 것, 최근의 것, 보편적인 것, 구체적인 것부터 우선한다.

② 교육 방법의 결정

-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해설, 설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팀티칭, 협력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
- 학생의 직접 체험활동, 소그룹별 공동 과제 해결 활동, 개별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③ 학습 시간의 결정

- 교육 내용의 수준과 분량, 특성, 학습 형태와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블록타임 수업이나 전일제 운영 등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차에 따른 소집단별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

④ 학습 시기의 결정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학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결정한다.
- 특히, 계절, 기후, 세시 풍속, 국가 및 지역의 행사, 환경, 자연계의 생태, 각종 역사적, 사회적 사건 등과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학습 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⑤ 학습 형태·학습 조직의 결정

- 학습 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선택한다.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배합, 조직한다.
-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결정한다.

⑥ 학습 매체의 결정

- 교수·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고려하고, 견학, 방문, 실습과 자원 인사 초빙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
- 교과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⑦ 평가 계획의 결정

-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한다.
-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 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순서의 융통성

교과 전문가로서 교사는 학교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취해야 할 교육 목표에 따라 교과 내용의 순서, 비중 및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시간, 장소, 조직, 주제 등에서 각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체험학습의 실천 방안

조사, 탐구, 견학, 답사, 실험, 실습, 관찰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체험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교육 시설·설비, 문화재, 고적, 전적지 등을 이용한 교육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 시설이나 설비 등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강구되어야 하며, 활동 주제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다른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 교원의 원활한 교류 등도 가능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누적되어 상급학교 진학 자료 및 진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적 편성·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실천중심의 체험학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경험과 행동을 통한 학습에 초점을 두고 활동 방향을 정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구분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영역을 통합할 수 있다. 둘째,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각 영역별 활동과 하위 활동은 학교 및 학년 단위, 학급, 동아리 부서, 지역사회 중심 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 영역별 시간 편성은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지를 결정한 후에는 운영 형태에 따라 시간 배분을 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년별로 시수를 다르게 배정할 수 있다.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고, 학생의 기초 학습,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통한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소외 계층의 집중 지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학교 내 교육 활동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외부의 지도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 지도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현실 생활에서 주체적인 생활 방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학습의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이 학생과 교사 간의 협력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도록 교사는 학생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한편,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과 함께 정의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이 사회 규범이나 학교 규칙에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즉, 배움이 단순히 바른 행동과 질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성장과 확장을 통해 참된 배움의 가치를 알고 이를 통해 자기 생각이 형성되어 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사의 교육 활동 개선 지원

교과연구회 운영, 수업 개선을 위한 동료 장학, 요청 장학 실시와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로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사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중장기 연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과정 개설로 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연수는 교사들의 현장 연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연수가 필요하며 강의 위주의 연수에서 실질적인 학습 위주의 연수, 교사의 희망을 고려한 수요자를 존중하는 맞춤형 연수를 확대하고 현장 적용 과정과 토의 과정을 거치는 연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활동 및 연수 혁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 활동 및 연수 내용이 수업에 즉시 활용되도록 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지속적 학습 개선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 단위 자율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자율연수 지원단 등을 활용한다.

따.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학교 교육과정 평가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 참여자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13)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민용성 외, 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일부 변형한 것이다.

〈표 IV-1〉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 예시 자료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계획	계획 수립 과정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실태·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 지역사회·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 만족하는가?
	계획 내용	•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의 교육 중점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계획하였는가?
		•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평가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내용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 교육 활동	• 교과 교육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 수업을 실시하였는가?
		• 교과별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 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지원 체제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연수 및 장학을 실시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 시설, 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과정 성과	교육 성과	• 학생은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의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었는가?
		•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 성과에 만족하는가?
		•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에 따른 학교의 변화에 만족하는가?
	교육 성과 활용	• 학교·교사·학생은 교육과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는가?
		• 학교·교사는 교육과정 성과를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운영에 활용하였는가?

2. 교수 · 학습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목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2) 각 교과목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 · 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 · 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 ·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교과 학습의 중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할 것을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다. 방대한 양의 교과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 개념들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의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관련지어서 파악하여 일반화나 원리를 구성하고 그것을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식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단순히 암기하고 회상하는 학습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개별 사실들이나 정보를 관련지음으로써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탐구를 유도하는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획득한 일반화된 지식을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수업 설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서 각 교과의 개념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별 기능이 매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경험되어야 한다. 이 경험은 학년마다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라 학생의 발달적 특성, 인지 및 학습능력은 다르다. 교사는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수업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내용이 자신의 선경험, 선지식과 연결되어 의미 있는 지식으로 구성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동일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라 할지라도 학년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며 이렇게 축적되는 경험으로 학생은 교과 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가.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융합적 사고 지도 방안

다양한 지식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융합적 사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이 조직되어 있으며, 교사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공통성 혹은 관련성을 가지는 지식을 연결하여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을 통합한 교수·학습 계획을 구성할 수 있다.

가.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학생 참여 수업 활성화

학습 내용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교과의 개념, 원리, 아이디어의 관계성, 교과 고유의 사고기능 및 탐구기능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주장을 논증과 실증으로 정당화하는 토론 학습, 여러 사람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결론을 내는 토의 학습도 학생이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과정으로 학생은 교사, 동료 학생들과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식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공고히 다져 나간다.

가.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협동학습 경험 제공

학습자마다 선행 학습의 정도나 현재 지식 수준, 능력, 학습 선호도, 학습에 대한 동기 등이 상이하므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화된 학습은 학습자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준비 정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속도, 선호하는 학습 방법,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학습 방법과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개별 학습 활동은 단순히 학습자가 혼자서 하는 학습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활동 방식은 학습자 개인 활동 또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소집단 활동 모두 가능하다.

협동학습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공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며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학생 주도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소집단 구성원 간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인지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학생들은 공동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소집단 내 다른 구성원을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의 수행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공동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협동학습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의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가.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학습 내용의 적용

각 교과와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원리를 학습할 때 그 내용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탐구하는 활동 속에서 개념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계획되어야 한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생활 기반 활동은 학생의 개념 및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교과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메타인지적 전략 및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은 학생 안에서 일어나며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여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고 주도해갈 때 학습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알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주도하며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

교사는 교수·학습활동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먼저 학생의 선경험, 선지식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확인하고, 점검 및 평가하여 자신의 학습활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이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

교실은 모든 학습자와 교사가 존중받는 안정적인이며 공정한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상호 성장과 성취를 위하여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성공적인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모든 학생이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학생 맞춤형 수업

학생들은 개개인이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과별로 성취해야 할 최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의 학습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은 다양해야 하며 특히 성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경직되면 전체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등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만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교사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을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장·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나.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별 보충 수업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과 전후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실 수업에서 부족한 학습 내용을 재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 시기와 대상 학생을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나. 4)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교과 교실제 운영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를 활성화한다. 학습자의 진로 지도와 관련한 맞춤형 수업과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구비한 특성화된 교실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 실험과 악기를 활용한 실용 교육 등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적극 증대하기 위하여 전용 교실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학 담당자 등은 각 교과 전용 교실에 대한 사용 및 관리 계획, 활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나.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참고 자료, 기타 교육 자료와 각종 교구, 교육 기자재 등의 적절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구를 구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각종 교육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강구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하여 활용한다. 그리고 시청각 기자재와 컴퓨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담당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들에게 활용 방법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활동에 투입되는 교육 자료에 대해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교육 목표, 학습 목표와의 일치도, 지도상의 유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때로는 자체 개발 교재, 교구, 수집 자료 등이 훌륭한 학습 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개인별 연간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 자료를 누적·보존하여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실험 실습이나 실기 지도에서는 실험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시설 및 기구를 미리 점검해 보고 수업에 투입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과학과의 경우 실험 도구와 약품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 담당 교사는 대응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 처치 방법도 익혀 두어야 한다. 실험실, 체육실 등에는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수칙을 게시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3. 평가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교과와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평가의 목적

평가는 교수·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가 되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학습이 끝난 후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의 능력을 일방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을 돕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평가 정보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제공하여 교육적 노력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교육 목표 도달도를 판단하여 학습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적합한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주어 학생이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을 수정·보완하며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에 필요한 내용과 기능을 확인하고 수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형성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여 다음 학습 목표나 다음 수업 시간의 학습 과제 선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총괄평가로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수업 내용과 수준을 점검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 방법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성취기준은 각 교과에서 학생이 학습을 통해 얻어야 할 지식이나 기능 혹은 태도를 담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을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평가는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것에 대한 교육 목표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밖의 평가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므로 교사는 유의해야 한다.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는 평가는 학생 개인의 강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면에서 진단평가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학생의 수행을 효과적인 수업 계획과 실행 전체를 통해서 평가한다는 면에서 형성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학생평가는 교수·학습의 일부로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평가 방법의 경우, 사용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연관되면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평가의 과정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수행의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하는 준거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자기 평가하도록 한다. 다양한 수행 지표에 대해서 교사와 이야기하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형태의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습과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인다. 자기평가도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개인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서 자신이 알게 되고 느끼고 배우게 된 것, 반성하게 된 것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다. 학교는 교과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 활용

서술형 평가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거나 풀이과정을 제시하는 등 학습한 내용을 기술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서술형은 논술형에 비해 짧은 길이로 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글의 조직력이나 표현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채점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답이 있다. 논술형은 서술형보다 길게 보통의 경우 한 단락 이상으로 구성되며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조직하는 평가로 채점 시 교사(채점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수행평가 과제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고, 도전적이며,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실생활 맥락성, 간학문성, 다차원적 측면들을 강조한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수행평가 과제는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실세계에 가깝고 교과 통합적이며, 여러 차원의 지식과 인지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교실 평가에서 수행평가를 확대하면 정의적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실제 생활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고등 사고 기능이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또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평가하여 학습자의 학습 진보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고 학생들 또한 자기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게 된다.

평가 방법은 교과의 특성과 교육 목표에 따라 달라지며, 교과 교육 활동에서 사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일관되면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교과 평가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자아개념, 가치관, 흥미, 태도, 책임, 협력, 동기 등의 정의적 측면이나 다양한 교과 관련 기능적 측면, 또는 확산적 사고를 포함한 창의적 면이 중시되는 교과는 평가 계획 수립에 있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공감 가능하며 전문적인 평정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실험·실습 과정의 직접 관찰, 결과 보고서 등 계획된 모든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단편적 기능뿐 아니라 적용 능력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실습의 평가 시행에 있어 세부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학생에게 공개한 후 실시해야 한다. 수행 기준과 평가 기준이 명백하게 마련되어 충분히 논의된 후 학생이 학습 활동과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을 통해 나눔과 배려 등의 인성을 함양하며, 자발적인 사고와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것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여건과 학교의 실태, 학습자의 능력이나 요구 등이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의 주안점을 작성, 활용해야 한다.

다.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의 능력단위 기준의 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전문 교과 성취평가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 교과Ⅱ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한 것은 산업사회의 요구와 고교 직업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직업교육 학습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자격 제도나 채용 방식이 개편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가 구축되는 과정에 있어 학교 직업교육 경험이 여러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기본 단위인 NCS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교육적 편견 극복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는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성평등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은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므로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통해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도록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상의 학력 차별 및 과도한 학력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로 인해 노동 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현장 산업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고교 직업 교육 강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학력을 중시해 온 사회 풍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 없는 개방적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각 사람의 강점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등 심신 장애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한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 되어야 하며, 학습 자료도 학생의 개별화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가급적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달라진 현실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적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교육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임을 주지하고,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특수학급 설치·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특수학급이라고 한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첫째,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은 통합교육의 정신과 원칙을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만, 장애 유형¹⁴⁾에 따라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2015e)의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¹⁵⁾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지적 장애가 심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도 수행이 어렵거나, 장애 학생을 위해 특성화된 진로·직업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할 경우 교수·학습과 평가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 및 평가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표 IV-2>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교과별로 대체할 수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활용 예시(안)’이다.

14)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등

15) 중도의 지적 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안형 교육과정인 기본 교육과정(초·중·고 과정),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인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초·중 과정), 고등학교 장애 학생의 직업 교육과정인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 등

〈표 IV-2〉 특수교육 교육과정 활용 예시(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비고(대상)
국어	○ 기본 교육과정 국어 ○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국어	• 중도 지적 장애 학생 •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
영어	○ 기본 교육과정 영어 ○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영어	• 중도 지적 장애 학생 •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
체육	○ 기본 교육과정 체육 ○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체육	• 중도 지적 장애 학생 •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
그 외 교과	○ 기본 교육과정 해당 교과	• 중도 지적 장애 학생
중학교 선택 교과의 '진로와 직업'	○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 지적 장애 학생
고등학교 보통 교과 일반 선택 과목의 '진로와 직업'	○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과목	• 지적 장애 학생 •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과목	• 지적 장애 학생 • 시각·청각·지체 장애 학생

둘째, 장애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교과용 도서 보완 자료나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knise.kr/>)의 [학습자료]나 [교육용프로그램] 메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다문화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원칙적으로 일반 학급에 배치하되 특별 학급에서는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문화·사회적 차이로 인해 일반 학급에서 교우들과 함께 학습하기 어려운 과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 교과목 및 활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에 한정하여 특별 학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다문화 학생이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소양을 갖추어 나가면서도 많은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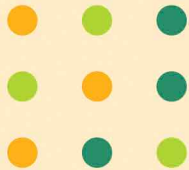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의 단계는 그림을 통한 어휘 학습과 표현에 관한 학습, 일상 생활에서의 표현과 자연스러운 대화, 문제 상황에서의 대화 및 기초적 읽기/쓰기 학습, 발음 교정 및 학습 어휘 학습, 학년별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의 단계를 참고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 종교 과목 개설 시 고려사항

세계 각국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 이에 국·공립학교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교사들도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설립의 목적에 따라 종교적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종교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 진학시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관계 없이 학교에 임의 배정되므로 학생에게 특정 종교 교육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따라서 종교계 학교라 하더라도 종교 과목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종교 과목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종교 과목 외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단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교 과목 개설과 관련한 학교의 방침을 충분히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16) 교육기본법 제6조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유기적 협력 지원

국가 차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우선,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대국민 연수·홍보를 강화하여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을 알린다. 즉 단위 학교에 학년별로 배우는 교과(군)별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책무성이 있음을 인식시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교육과정 질 관리

이 지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이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또한, 당초 의도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교 및 교육청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학습 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 학력 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를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취업 중심 교육 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졸업 후 바로 일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 따른 교육 내용 차이, 학력 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기초 학력 보정과 취업을 위한 직업 기초 능력의 신장 및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국가적 지원을 한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과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촉진시킨다. 학교 평가는 단위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단위 배당, 편성·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학교의 평가 활동 지원

국가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밀도 있게 실행되도록 그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평가 활동을 시행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도구의 개발, 보급이 필수적이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또는 직무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국가가 인증·고시한 것이다.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과를 학습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산업계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표준화된 절차, 방법, 양식에 준하여 NCS를 개발하였기에 산업계의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이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평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교과 교육 과정에 관한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교과 연구회 지원은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인력풀이 유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 연구회는 구체적인 교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회뿐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연구하는 총론 차원의 연구회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회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지원

학교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과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원 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 선택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행복한 학습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도 학교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 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명칭, 구성, 임기, 방법 등 위원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기능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의 내용과 자문의 범위 및 기능 등을 정하여 교육과정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교과별·학교 급별 분과 및 심의 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교과별·학교 급별 분과 및 심의분과’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의 분석 및 검토, 교육 중점 사항 설정 및 자문 등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연구팀을 조직·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이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침(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가.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의 위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학교 급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학교 급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관련한 별도의 기구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필요와 단위 학교별로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지도 실태, 시설·환경 및 재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추출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기초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해당 지역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의 교육 중점 사항을 설정한다. 이때, 기초 조사·연구 활동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각종 학회와 교원 양성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장학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예시 자료(교육과정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등)와 교수·학습 자료, 자유학기 활동 자료 등을 조기에 개발·보급하고, 매 학년도 개시 이전에 새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 및 대책을 면밀히 세워 교원의 전보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교과용 도서 인정·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국정·검정 도서가 없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학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인정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수업 자료의 형태는 서적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지털 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서나 지도서 같은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매체의 개발·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자유학기 지원계획 수립·추진

2015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학기는 개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유학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자유학기 운영 체제 및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역별·학교 규모별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자유학기 취지에 맞는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방안, 자유학기 중 운영되는 4개 영역별 다양한 체험활동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보급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자유학기 활동과 교과 수업 및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업과 평가에 관한 실무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 나눔과 성찰, 수업 모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교과 연구회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은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 자유학기 체험 자원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별,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 지원체제(단)’를 구성하여, 협동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연수회를 지원하고 자유학기 활동이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단위 학교 교과목 개설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승인 신청 절차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요령 및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하며,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부여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가급적 단순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학교가 해당 신설 과목에 대비하여 담당 교사 확보 계획 및 교재 개발 계획,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 자원 목록 작성 및 제공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다양성과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파악하여 ‘지역 자원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은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지역 자원 목록’ 등을 지원받아서 학교의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학교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 구축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교사 운영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 등의 체제 변화에 따른 교원 소요 변화를 예측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근학교 겸임(순회) 교사 발령은 물론, 교원 양성, 부전공 연수 등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학생 배정의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개별 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과 설비를 관내 학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미이수 과목 이수 기회 제공 및 인정

전·편입학, 복학 또는 귀국 학생 등의 경우 각 학교 간 및 입학 연도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 교과 또는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에서 학기 중 또는 별도의 이수 시기를 정하여 이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들을 연합하여 미이수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때 단위 학교에서 미이수 과목 중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활용, 순회교사 활용, 강사 채용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배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 학생 교육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위 학교가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를 교육지원청별 또는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교육에 적응이 어려운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정 기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기 해외 체류로 발생한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국내 생활 및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특정 학교에 특별 학급을 지정·설치하여 귀국 학생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구별로 공동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 간 연합을 통해 귀국 학생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대한의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 장벽 해소와 사회적 귀속감 증대를 위하여 각각의 능력에 맞는 개별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지역 및 단위 학교의 특수성에 대한 기초 실태 조사를 통해 문학, 외국어, 과학, 체육, 예능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급별로 이를 위한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단위 학교에 보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연수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교원 연수 계획 및 시행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새 교육과정의 총론 및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대한 현장 교원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연수 과정에서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했던 연구진이 지침의 성격, 그 개발 과정 및 검토되었던 쟁점들, 지침의 기본 이념 및 지침 적용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학교에서 작성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및 그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에 소속된 교육 전문직 대상의 교육과정 연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업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 학교 운영 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타.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및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전문적인 컨설팅 기구를 조직 운영하여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 결과가 국가 수준의 각종 평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은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 학교별 연수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 개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연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한다.

또한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이때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 학부모 등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원 조직이 되도록 한다. 학교나 개별 교사가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 사례 등을 모아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타.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연구학교, 연구교사, 교과별 연구회 활동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수업 개선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고, 교과별·연구 영역별 수업 연구 교사 및 교원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영역에서 교수·학습 지도 능력과 연구 수행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연구 교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 연구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연구 교사제 운영을 위한 방침을 세워 연구 영역 및 연구 기간, 연구 교사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교원 연구 모임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과 및 비교과 관련 관심 분야, 학생의 발달 특성,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교육 시설, 설비, 자료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교육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안전한 학교 시설 운영을 위해서 단위 학교별로 교육 시설 및 설비를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점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점검 기준의 내용에는 교육 시설 및 설비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사용되는지 여부와 교육 시설이 교육 활동을 지원함에 부족함이 없는지, 학생 안전을 위해 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과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점검 및 정비는 매 학년도 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 구축에 대한 단위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 교과 수업모형의 예시 자료,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운영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파.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 탐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제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의 교원 수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군)별로 해당 교과목 교원의 인력풀을 구축·안내하여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편 소수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시·도 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순회 교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단위 학교의 교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비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파.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농촌·산촌·어촌 및 벽지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둘 이상의 다른 학년이 하나의 학급이나 교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의 학년 체제 운영 방식과는 다른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이에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재의 재구성,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교원 배치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공동 편성이나 교원 순회제 등 소규모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학교 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개선 방안 등의 협의가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구별 장학 협의회나 교과별 협의회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학습이나 체험활동 기회 부여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수준별 수업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수준별 수업 운영의 수업모형과 예시 자료, 수준별 수업 적용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구별 장학과 교과 연구회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방법과 수준별 수업 자료 등의 연구와 개발·적용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진단·지도하여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진단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파.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학교의 돌봄 기능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의 돌봄 기능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 활동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돌봄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 및 보육 교실 운영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사 확보, 학습 시설 및 교재·교구의 구비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수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집중과정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희망하는 집중과정을 한 학교 내에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집중과정을 개설할 인근학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 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련한 지침과 매뉴얼을 제시하고, 지역 내 개별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집중과정의 유형과 운영 방식, 집중과정 개설학교의 지정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 간 의사소통의 장(場)을 마련하는 등 소수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파.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독서 활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인 ‘심미적 감성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성장시키고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의 함양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단위 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독서 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특히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연계, 지역사회 연계, 가정학습을 연계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독서 활동 프로그램은 교과 연계 수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교과 융합 수업모형, 교과용 독서 지도 매뉴얼, 도서관 연계(사서 교사 협력 등) 독서 수업 모형, 교과용 도서 이외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초·중·고 학교 급에 따른 독서 활동 자료 등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독서 활동을 주제로 한 교사 연수를 통해 독서 활동 지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 수준에서 독서 활동 지도 방법과 자료 제작을 연구·개발하는 교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단위 학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를 확보하여 학생의 독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 구입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파.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특성화된 교육과정에서의 내실 있는 현장 실습 운영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연계·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산학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현장 실습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산업체와 긴밀한 상호협력 등을 통해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질 관리 연구팀이나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지도·조언을 실시한다.

하.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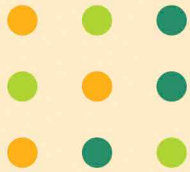
● 학교 교육과정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위 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수업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하.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청 수준의 자체 평가 강화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단위 학교의 평가를 수렴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지원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



부 록

[부록 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 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 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 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 【별책 10】 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 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 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 과 같습니다.
14.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 와 같습니다.
16.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6】 과 같습니다.
17. 한문과 교육과정은 【별책 17】 과 같습니다.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8】 과 같습니다.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 와 같습니다.
20.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 과 같습니다.
21.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 과 같습니다.

22. 예술 계열 전문 교과(보통 교과 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22】와 같습니다.
23.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과 같습니다.
24.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와 같습니다.
25. 전문 교과II 교육과정은 【별책 25~41】과 같습니다.
26. 창의적 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42】와 같습니다.
27. 한국어 교육과정은 【별책 4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II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호(2011.1.2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2011.2.2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8.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2012.3.2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7.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2012.12.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부 3.0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 초등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표 1〉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384	272	272
	영어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204	204
		안전한 생활 (6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3)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7)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중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표 2〉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 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 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1) 보통 교과

㉞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㉞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문 교과

㉞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I 과 전문 교과 II로 구분한다.

㉞ 전문 교과 I 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㉞ 전문 교과 II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 II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 3〉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4〉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전문 교과Ⅱ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표 5〉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 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 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러시아어Ⅰ 스페인어Ⅰ 아랍어Ⅰ 중국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러시아어Ⅱ 스페인어Ⅱ 아랍어Ⅱ 중국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 I

〈표 6〉

교과(군)	과목			
과학 계열	심화 수학 I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정보과학	심화 수학II 고급 화학 화학 실험 융합과학 탐구	고급 수학 I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과학과제 연구	고급 수학II 고급 지구과학 지구과학 실험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스포츠 경기 체력	체육과 진로 탐구 수상 운동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스포츠 경기 실습	체육 지도법 개인·대인 운동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분석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예술 계열	음악 이론 합창 미술 이론 입체 조형 무용의 이해 무용 음악 실습 문예 창작 입문 고전문학 감상 극 창작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표현 기법	음악사 합주 미술사 매체 미술 무용과 몸 안무 문학 개론 현대문학 감상 연기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영상 제작의 이해	시창·청음 공연 실습 드로잉 미술 전공 실기 무용 기초 실기 무용과 매체 문장론 시 창작 무대기술 영화기술 암실 실기 사진 영상 편집	음악 전공 실기 평면 조형 무용 전공 실기 무용 감상과 비평 문학과 매체 소설 창작 연극 제작 실습 시나리오 중급 촬영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독해 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와 작문 II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I	심화 영어 회화II 심화 영어 독해II 독일어 회화 I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회화 I 중국 문화 일본어 회화 I 일본 문화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 문화 아랍어 회화 I 아랍 문화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 문화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 작문 I 독일어 회화II 프랑스어 회화II 스페인어 회화II 중국어 회화II 일본어 회화II 러시아어 회화II 아랍어 회화II 베트남어 회화II	심화 영어II 심화 영어 작문 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국제 계열	국제 정치 한국 사회의 이해 현대 세계의 변화	국제 경제 비교 문화 사회 탐구 방법	국제법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사회과제 연구	지역 이해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나) 전문 교과II

〈표 7〉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경영 · 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유통 일반 국제 상무 비즈니스 영어 금융 일반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총무 비서 사무 행정 회계 실무 구매 조달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수출입 관리 금융 상품 세일즈 증권 거래 업무 보험 모집 고객 관리 매장 판매	노무 관리 인사 예산 · 자금 세무 실무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창구 사무 카드 영업 무역 금융 업무 손해 사정 전자 상거래 실무 방문 판매	경영 · 사무과 재무 · 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건 · 복지		인간 발달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아동 복지 보육 실습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복지 서비스의 기초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공중 보건 간호의 기초 보건 간호 기초 간호 임상 실무	영 · 유아 놀이 지도 영 · 유아 건강 · 안전 · 영양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영 · 유아 교수 방법 대인 복지 서비스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 · 문화 콘텐츠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제품 디자인 방송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게임 콘텐츠 제작 만화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 · 관광 · 레저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 · 보건 관광 일반 관광 사업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헤어 미용 메이크업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피부 미용 네일 미용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카지노 · 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미용과 관광 · 레저과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음식 조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믈리에 바텐더	조리 · 식음료과	
건설		공업 일반 기초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경	토공 · 포장 시공 지적 건축 목공 시공 창호 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조경 시공 조경 설계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배기 자동차 전기 · 전자 제어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방전 가공 위터제트 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기계 수동 조립 건설 광산 기계 설치 · 정비 공작 기계 설치 · 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 · 정비 냉동 공조 설계 냉동 공조 유지 · 보수 관리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정비 검사 선체 조립 선체 품질 관리 전장 생산 선실 의장 생산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전기 · 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 전기 · 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레이저 가공 플라스마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운반 하역 기계 설치 · 정비 섬유 기계 설치 · 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 · 정비 승강기 설치 · 정비 냉동 공조 설치 자동차 전기 · 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배기 정비 자동차 도장 선체 가공 선박 도장 기장 생산 선장 생산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엔진 · 프로펠러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헬리콥터 정비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재료		재료 시험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재료 일반 산업 설비	주조 제강 금속 재료 가공 압연 도금·도장 광학 재료 생체 세라믹 재료 내화물 도자기 탄소 제품 배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선 금속 열처리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비철 금속 제련 전기·전자 재료 내열 구조 재료 유리·법랑 연삭재 시멘트 판금 제관 피복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로봇 용접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 공업		공업 화학 제조 화학 단위 조작	화학 분석 공정 제어 고분자 제품 제조 정밀 화학제품 제조 플라스틱 성형과 가공	화학 물질 관리 석유 화학제품 무기 공업 화학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생산 품질 관리와 설비 관리	화학공업과
섬유· 의류		섬유 재료 섬유 공정 염색·가공 기초 의류 재료 관리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패션 마케팅	방직 제포 텍스타일 디자인 생산 현장 관리 패턴 메이킹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가족·모피 디자인과 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방사·사가공 염색·가공 구매 생산 관리 패션 디자인의 실제 비주얼 머천다이징 니트 의류 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패션 상품 유통 관리	섬유과 의류과
전기· 전자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기초 전자 회로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수력 발전 설비 운용 원자력 발전 설비 운용 전기 기기 제작 외선 공사 자동 제어 시스템 운용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운용 전자 부품 개발 전자 기기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제조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하드웨어 개발	화력 발전 설비 운용 송변전 배전 설비 운용 내선 공사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전기 철도 시공 운용 전자 부품 생산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재료 제조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전기과 전자과
정보· 통신		통신 일반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방송 일반 정보 처리와 관리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무선 통신 구축·운용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유선 통신 구축·운용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식품 가공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식품 분석	곡물 가공 수산 식품 가공 두류 식품 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김치·반찬 가공 제과 식품 품질 관리 면류 식품 가공 축산 식품 가공 유제품 가공 음료·주류 가공 제빵	식품가공과
인쇄· 출판 ·공예		인쇄 일반 디지털 이미지 재현 출판 일반 공예 일반 공예 재료와 도구	프리프레스 특수 인쇄 출판 편집 도자기 공예 석공예 보석 감정 평판 인쇄 후가공 금속 공예 목공예 섬유 공예 보석 디자인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 안전		환경 화학 기초 인간과 환경 산업 안전 보건 기초	환경 보건 관리 환경 생태 관리 환경 측정 관리 전기 안전 관리 화공 안전 관리 환경 공정 관리 생활 환경 관리 기계 안전 관리 건설 안전 관리 비파괴 검사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림· 수산 해양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경영 재배 농촌과 농지 개발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거래 관광 농업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산 식품 가공 원예 생산 자재 조경 식물 관리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산림 자원 임산 가공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과 물	수도작 재배 종자 생산 농촌 체험 상품 개발 채소 재배 화훼 재배 임업 종묘 산림 이용 임산물 생산 펄프 제조 가금 사육 한우 사육 말 사육 사료 생산 연안 어업 원양 어업 염 생산 어업 환경 개선 내수면 양식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전통작 재배 농업 환경 개선 농촌 체험 시설 운영 과수 재배 화훼 장식 산림 조성 산림 보호 버섯 재배 목재 가공 젖소 사육 돼지 사육 종축 동물 약품 제조 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 자원 관리 해면 양식 수산 종묘 생산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정보 관리 해양 오염·방제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운용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수산물 유통 양식 생물 질병 해양 환경과 자원 해양 레저 관광 요트 조종 잠수 기술		
선박 운항		항해 기초 해사 일반 해사 법규 선박 운용 선화 운송 항만 물류 일반 해사 영어 항해사 직무 해운 일반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항해 선박 기관 운전 선박 통신 선박 갑판 관리	항해과 기관과

- 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 나)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군)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I 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 I 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I 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학과는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 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교수·학습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와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2) 각 교과와 학습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조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각 교과와 학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평가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교과와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 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부록 I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가. <좌동>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나. <좌동>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신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신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자.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나.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신설〉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마. 교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신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Ⅱ-1-가 이동〉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바른 인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Ⅱ-1-가-(1) 이동·수정〉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Ⅱ-1-가-(2) 이동·수정〉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Ⅱ-1-가-(3) 이동·수정〉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Ⅱ-1-가-(4) 이동·수정〉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Ⅱ-2-가 이동〉 가. 중학교 교육목표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Ⅱ-2-가-(1) 이동·수정〉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II-2-가-(2)' 이동·수정〉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II-2-가-(3)' 이동·수정〉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II-2-가-(4)' 이동·수정〉 (4)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3-가' 이동〉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II-3-가-(1)' 이동·수정〉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II-3-가-(2)' 이동·수정〉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II-3-가-(3)' 이동·수정〉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3-가-(4)' 이동·수정〉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I-2-나'항 이동·수정〉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2-다'항 이동·수정〉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1-2-라'항 이동·수정〉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다. 〈작동〉
〈11-2-마'항 이동·수정〉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신설〉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1-2-바'항 이동·수정〉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1-2-사'항 이동·수정〉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1-2-야'항 이동〉 야.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삭제〉
〈11-4-가-(23)항 이동·수정〉 (23)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II-4-가-(24)항 이동수정〉 (24)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2.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 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 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② <좌동>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좌동>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④ <좌동>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3)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학교는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7) <좌동>
<신설>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0) <좌동>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삭제>
2. 중학교	3. 중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라) <좌동>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② <좌동>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신설〉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신설〉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신설〉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신설〉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신설〉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신설〉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신설〉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 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좌동〉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다) 〈좌동〉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라)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삭제〉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삭제〉
3. 고등학교	4. 고등학교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좌동〉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나) 〈좌동〉
〈신설〉	(1) 보통 교과
①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㉑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신설〉	㉒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신설〉	(2) 전문 교과
〈신설〉	㉓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신설〉	㉔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에 관한 교과로 한다.	㉕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업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 <좌동>
(2) 단위 배당 기준	2) 단위 배당 기준
(2)-①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① <좌동>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신설>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⑤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④ ()안의 숫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⑦ 기초 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권장한다.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⑦ <좌동>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⑧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2)-②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①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좌동>
<신설>	③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③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계열, 학교 및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교과 영역별로 교과(군)을 균형 있게 편성한다.	④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④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⑥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3) 보통 교과
① 일반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① 선택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다.
<신설>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체육 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예술계열 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에서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삭제>
③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삭제>
⑦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삭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4) 전문 교과	4) 전문 교과
〈신설〉	가) 전문 교과 I
〈신설〉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②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신설〉	나) 전문 교과 II
③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① 전문 교과 II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 공업 계열 : 공업 일반, 기초 제도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 수산·해운 계열 :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②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모든 계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지침	1) 공통 사항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가) 〈좌동〉
(카)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나)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 하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II-3-다-(4)-(가) 이동수정〉 ②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되 실습 중심 과목은 제외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나) 교과외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매)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야)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외의 심화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외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신설〉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신설〉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86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의 제1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와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한다.	〈삭제〉
〈신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좌동〉
(마)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삭제〉
(바)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사)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바) 〈좌동〉
(아)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다) <삭제>	<삭제>
(라) <삭제>	<삭제>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7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신설>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 심화 과목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보통 교과 심화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나)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과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의 심화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보통 교과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을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5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③ 전문 교과는 학생의 경력 개발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기초 지식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한다.	〈삭제〉
④ 학교 자율 과정은 학교의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의 경력 개발을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삭제〉
(사)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학과에 따라서는 세부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나) 학과는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바)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마)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교과 내용은 학교 교육목표와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과의 주제나 내용요소를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한다.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삭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또는 학교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래) 직업 기초 능력, 직업 윤리, 산업 안전 보건, 노동 관계법 등의 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실습 관련 교과를 지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 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파)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 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가) 특성화 고등학교 외에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Ⅲ-2’ 이동〉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가. <좌동>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나. <좌동>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다. <좌동>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좌동>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1) <좌동>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2) <좌동>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좌동>
(2) <삭제>	<삭제>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좌동>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만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8)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차. <좌동>
(29)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어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도한다.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0)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타. <좌동>
<II-나-(1)에서 이동 및 수정>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신설>	2. 교수·학습
<신설>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1)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신설〉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신설〉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신설〉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신설〉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다.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6)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4) <좌동>
(25)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7)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기구,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나. 평가 활동	3. 평가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삭제>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신설>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신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신설〉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설〉	다. 학교는 교과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대)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3) 〈좌동〉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신설〉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가-(22)항 이동 및 수정〉 (22)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가-(21)항 이동 및 수정〉 (21)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가-(19)항 이동 및 수정〉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가-(20)항 이동〉 (20)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II-가-(7)항 이동〉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마. 〈좌동〉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가. 〈좌동〉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2) <좌동>
(4) 국가 수준에서는 산업과 직업 세계를 고려하여 기준 학과를 제시하고, 기준 학과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나 직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신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0)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6) <좌동>
<신설>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19)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신설>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신설>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부록 Ⅲ]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¹⁾

- ①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10호]
- 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50호]
-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3943호]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2. 대통령령 제27424호]
-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6. 22. 법률 제13335호]
-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2. 대통령령 제27421호]
- ⑦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타법개정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 ⑧ 교과용도서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09호]
- 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 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6. 3. 2. 법률 제14055호]
- ⑪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29. 제27457호]
- ⑫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83호]
- ⑬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
- ⑭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11.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 ⑮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3935호]
- ⑯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타법개정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 ⑰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2016. 2. 3. 법률 제13939호]
- 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3호]
- 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78호]
- 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27호]
- 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6. 23. 교육부령 제101호]
- ㉒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3. 22. 법률 제14078호]

1)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검색 일자: 2016. 11. 30.

- ㉓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9. 21. 제27501호]
- 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15. 12. 22. 법률 제13574호]
- 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 ㉖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49호]
- ㉗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9. 5. 대통령령 제27477호]
- 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2015. 1. 20. 법률 제13004호]
- ㉙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2015. 7. 20. 대통령령 제26403호]
- ㉚ 진로교육법 [제정 2015. 6. 22. 법률 제13336호]
- ㉛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27호]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그 밖에도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과 교육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에 해당된다.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교육의 이상이며, 교육이란 개인을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의 질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최소 필수 교육’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교육을 운영한다. 그리하여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 교육권을 가진 모든 교육 주체의 중심이 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에 기초한 권리로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제한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 기준이 된다.

나. 교육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홍익인간, 전인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²⁾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된 것도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이념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194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이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2)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교육’의 방향은 고종이 1895년에 작성한 교육입국 조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되었으며,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중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41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는 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교육부 장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 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 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급별 교육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도 학교 급별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

1.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각 학교는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동법 제23조 제2항의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②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는 국가의 관여를 통한 전문적 지도 조연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23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는 중학교의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마. 수업, 학기, 수업일수 등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수업 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6 조 (학급 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 조 (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8 조 (수업 운영 방법 등)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9 조 (수업 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제1항),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항).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시행령 제44조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시행령 제45조).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44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시행령 제46조에는 학급 편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에는 소규모의 소인수 학교 또는 학급인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에서도 활동 주제의 특성, 동아리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비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개교기념일 등이며(시행령 제47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³⁾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5항).

또한, 하루의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9조).

3)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 12. 30)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 5.)에 의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 ⑥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가독 탄신일), ⑪의 2. 「공직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바. 학년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수업 연한

■ 초·중등교육법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원칙적으로 학년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다른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42조에는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7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50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있으며, 졸업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사.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는 ‘국정 도서’,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검정 도서’,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고등학교 교육 목표,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그리고 해당 교과와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보다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책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 사회와 학교, 교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과정’의 운영과 지원 방안
- ②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③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축제 등의 교육적인 학교 행사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⑥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教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에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⁴⁾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명시된 기재사항은 ①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③ 교과·수업일수 및 교과와 과정 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⑦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⑧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칙개정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차.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생활 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에 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⁵⁾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3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부록 IV]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광복 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 있었던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육 요목을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9차례의 교육과정이 공포(고시)된 셈이며, 그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

8·15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의 성격은 군정 법령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상, 식민지적 사상과 형태를 불식시키고, 광복을 맞은 한국을 민주화시키려는 미군에 의한 직접 통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의 각 분야 지도자 7인(후에 3명 추가)으로 자문 기관인 한국 교육 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를 조직하였다. 1945년 9월 17일, 일반 명령 제4호로 9월 24일을 기하여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립 초등학교는 개교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10월 1일부터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반 명령 제4호’에 따라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 교과목 등 교육 내용에 관련된 것은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함을 금하는’ 포괄적인 지시였다. 또한, 평화와 질서를 당면한 교육 목표로 하고,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일체 제거하도록 하는 교육 방침을 제시하는 한편,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은 박순경 외 (2007)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다.

〈표 1〉 중등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교과 학년	공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계
1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2	4	2	2	1	1	1	-	33
2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3	4	2	2	-	-	1	-	32
3중학	2	6	4	4	5	-	-	5	3	2	-	1	-	2	34
고녀	2	6	3	2	4	4	3	4	2	2	-	1	1	1	35
4중학	2	5	4	4	5	-	-	5	3	2	-	-	-	3	33
고녀	2	5	3	3	4	4	4	4	2	2	-	1	1	1	36

① 중학: 남자 중학교, 고녀(고등 여학교): 여자 중학교

② 당시는 중등학교 편제가 4년제였으나, 1947년 4월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과 편제가 바뀜.

이러한 교과 편제나 시간 배당은 일제 강점기 말의 중등학교 교과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하여 광복 직후 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갑자기 결정한 것으로 어떤 일관된 철학적 입장도 세우지 못한 채 다만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자주적 교육을 하고자 하는 염원 아래 임시로 정한 것이다. 교과목 중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修身科)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공민과를 신설한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말과 글 중심인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 대신 우리 국사로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당시의 중학교는 현재의 고등학교가 포함된 학제로, 사범학교 심상과와 실업학교도 포함하고 있다. 사범학교와 실업학교는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실업 과목을 넣어 교수하도록 하여, 인문계 중등학교와 사범학교, 실업학교 사이의 교과 편제상 실업 과목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업 시수는 1주일에 32시간부터 36시간으로 1일 평균 5~6시간 정도인데, 교과목의 중점은 남녀 학교 모두 국어가 최고 7시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교수요목기(1946)

일반적으로, 광복 후부터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를 교수 요목의 시기라고 한다. 광복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 요목이 없었다. 다행히 국어는 조선어 학회에서 편찬한 ‘중등 국어 독본’이 있었고, 국사는 진단 학회에서 마련한 ‘국사’가 있었으나, 여타 교과는 학교나 지역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교수 요목을 만들고 교재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을 제정하는 한편,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조선 교육 심의회에서 결정된 새 학제가 적용되는 1946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군정청은 일부 교수 요목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1946년에 제정된 교수 요목을 분석해 보면, 체제상 각 교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교과서 발행에 지침이 되는 교수 요목을 정하는데 급급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국어와 영어는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학과 이과의 교수 요목은 제목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교수 목표나 지도시유의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등 분과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수정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의 교과 과정표를 제시하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초급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과정표

과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필수 과목	국 어		5	5	5
	사회 생활		5	5	5
	수 학		5	5	0
	일반 과학		5	5	5
	체육·보건		5	5	5
	실 과		2	2	2
	음악		2	2	2
선택 과목	수 학		0	0	0
	외 국 어		5	5	5
	음악		1~2	1~2	1~2
	미술		1~2	1~2	1~2
	수 공		1~2	1~2	1~2
	실 업		0~10	0~10	0~10
특수 과목	국 어		1	1	1
	과 학		1	1	1
합 계			39	39	39

- ① 선택 과목 중 수학, 외국어는 3년 수료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생도에게 필수로 함.
- ② 외국어는 영어로 함.
- ③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자동 기관, 인쇄 및 기타 실업에 관한 학과로 함.
- ④ 선택 과목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시설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표 3〉 고급 중학교 4, 5, 6학년 교과 과정표

과목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필수 과목	국 어		3	3	3
	사회 생활		5	6	5
	수 학		5	0	0
	과 학		5	5	0
	체육 · 보건		3~5	3~5	3~5
	외 국 어		0~3	0~3	0~3
선택 과목	국 어		2	2	2
	사회 생활		(5)	(5)	(5)
	수 학		0	5	5
	과 학		0	0	5
	외 국 어		5	5	5
	음 악		1~3	1~3	1~3
	미 술		1~3	1~3	1~3
	심 리		0	0	5
	실 업		5~18	5~20	5~25
합 계			39	39	39

- ① 필수 과목 중 외국어는 영어로 하며, 선택 과목 중 외국어는 중국어, 불어, 노어, 동어로 함.
- ② 선택 과목 중 사회 생활은 특수 경제 지리를 과하되, 매주 5시간씩 1년간 4, 5, 6 어느 학년에서든지 가르칠 수 있으며, 또 어느 학생이 이를 선택할 수 있음.
- ③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경제, 기타 지방의 실정에 적응한 학과로 함.
- ④ 선택 과목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설비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 ⑤ 1주 15시간 이상의 실업을 선택하는 자에 한 하여는 체육 · 보건을 3시간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필수로 아니 할 수 있음.

중등학교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①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국민’, ‘역사’, ‘지리’가 ‘사회 생활’과로 통합된 점, ② ‘체육’과 ‘보건’이 통합되어 ‘체육 · 보건’으로 된 점, ③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구분된 점 등이다. 이때에 작성된 교수요목의 전반적인 특색은 첫째, 교과와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고,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

고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하였고, 일제의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은 이를 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열거한 데 불과하였고, 교수 목표나 지도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특히 그 정도가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비하여 너무 높다는 평이 있었다. 이 교수요목은 정부 수립과 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어 1954년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의 ‘교과과정’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3. 제1차 교육과정(1954)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4호, 제45호, 제46호로 각각 공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로 개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기까지 유효했던 교육과정이다. 구성 방침이나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본 과정의 기본 태도’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사회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부흥시키고 미개발된 사회 환경을 발전시켜 보려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정부 수립 후 제정, 공포한 교육법에 제시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교육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어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 체계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반공·도의 교육을 강조하게 된 까닭은,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반공 의식의 고양에 어느 때보다 필요함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 교과는 필수, 선택을 합하여 총 이수 시간의 30%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과 직업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특별 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는데, 특히 특별 활동의 내용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따라 민주적 학생 활동, 학생의 개별 성장, 직업 준비 및 이용 후생,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이다.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5호로 공포된 중학교 교과 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표는 <표 4>와 같다.

〈표 4〉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문교부, 1954)

교과 \ 시간수 \ 학년		1년	2년	3년
필수교과	국 어	140(4)시간	140(4)시간	140(4)시간
	수 학	140(4)	105(3)	105(3)
	사회생활	175(5)	175(5)	175(5)
	과 학	140(4)	140(4)	105(3)
	체 육	70(2)	70(2)	70(2)
	음 악	70(2)	35(1)	35(1)
	미 술	70(2)	35(1)	35(1)
	실업가정	175(5)	175(5)	175(5)
소 계		980(28)	875(25)	805(23)
선택교과	실업가정	35~245(1~7)	35~245(1~7)	35~245(1~7)
	외 국 어	105~175(3~5)	105~175(3~5)	105~175(3~5)
	기타교과	0~105(0~3)	0~210(0~6)	0~280(0~8)
특별 활동		70~105(2~3)	70~105(2~3)	70~105(2~3)
계		1,190~1,330 (34~38)	1,190~1,330 (34~38)	1,190~1,330 (34~38)

* 괄호 내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 양을 표시함.

편제상의 특징은 첫째, 중학교 교과 활동의 교과는 대교과제를 취하여 필수 교과(8교과)와 선택 교과(실업 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를 두어 학생들 각자의 적성 및 취미 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더욱 넓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특별 활동이 교육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 편성되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처음 편제되었다. 셋째, 교과 구성과 시간 배당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 사회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량을 연 단위로 신축성 있게 편제하였다. 넷째, 지금의 도덕과에 해당되는 도의 교육은 사회 생활과에 배당된 시간 중 최소 35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교육과정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육 내용의 총체를 담은 국가 기준으로서 체계, 진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었다.

4. 제2차 교육과정(1963)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로 제정, 공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1969년과 1972년에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상 또는 이념상 생활 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비교적 서로 단절된 일군(一群)이 교수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보고 있다. 즉,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나,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경험 자체를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은 제2차 교육과정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히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서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교육과정의 정의와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 정의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 중심,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정의이다.

우선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본 과정에서는 이를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명실 공히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제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명칭도 제1차의 “교과 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계획이라는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을 제시한 다음, 학교 급별로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활동, 특별 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제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으로써 우리의 교육과정은 적어도 체제면에서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구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로 나누지 않고 보통 교육임에 비추어 필수 교과로만 제시하였으며,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문교부, 1963)

과정			학년	1	2	3
교과	국	어		5~6	5~6	4~6
	수	학		3~4	3~4	2~4
	사	회		3~4	3~4	2~4
	과	학		3~4	3~4	2~4
	체	육		3~4	3~4	2~4
	음	악		2	2	1~2
	미	술		2	2	1~2
	실업·가정			4~5	4~6	3~12
	외	국	어	3~5	3~5	2~5
반공·도덕				1	1	1
총 계				30~33	30~33	30~33
특별 활동				8%~	8%~	8%~

- ① 본 표는 매주 수업 시간 량의 최댓값과 최솟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②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하고, 1시간의 수업은 45분을 단위로 한다.
- ③ 계절,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각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 ④ 3학년에 있어서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지도 계획을 배당된 시간 안에서 적절히 수립할 수 있다.
- 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와 야간 중학교는 본 시간 배당 기준의 70%를 이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지방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장관의 위임 사항은 교육 위원회로 넘어갔으므로 본 항은 '교육 위원회의 승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 활동의 3영역으로 나누었고, 특기할 것은 지금까지 사회생활과의 각 학년 배당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35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시행했던 도의 교육, 반공 교육 활동을 교과 활동, 특별 활동과 같은 수준의 한 영역으로 신설하여 주당 1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반공·도덕에 관한 학습 내용은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 지도록 하되, 특히 사회과에서 강조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표 <표 5>에 나타난 특징은 구 교육과정과는 달리 중학교교육이 보통 교육임에 비추어 선택 교과를 두지 않고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두었고, 교과 내의 분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구 교육과정은 각 학년의 주간 배당 시간이 34~38시간이었는데, 이 과정은 30~33시간에 특별 활동을 8% 이상 부과하여 주당 총 이수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였으며, 수업 시간도 구 교육과정은 50분 단위로 했으나, 이 과정은 45분 단위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히 감축되었다. 구 교육

과정에서 교과별 시간 수를 연간 이수 시간 수와 주당 시간 수로 한 것과는 달리, 교과별로 주당 이수 시간만으로 표시하고(특별 활동은 총 이수 시간 수의 %로 표시), 그 폭을 두어 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신축성을 기하도록 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교과는 9개 교과로 하였는데, 특기할 점은 사회생활과의 명칭이 사회과로 바뀐 것이다.

제2차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학교교육 내용이 지배적이라도 하였으나, 각 교과의 내용 진술에는 교과 중심, 지식 중심의 틀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교육의 실제면에서는 입시 교육의 병폐와 교사와 학부모들의 전통적인 교과 중심적 타성 때문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은 그 운영의 실제면에서는 교과 과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

5. 제3차 교육과정(1973)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1974년에 걸쳐, 제정, 공포한 문교부령 제310호, 제325호, 제350호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고시된 중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했던 교육과정으로서, 이를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른다. 1969년 제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한 바 있는 문교부는 1969년 9월에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전면적이고 단계적인 개정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첫째 사업으로 초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어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에 들어갔다.

교육과정의 총론은 1969년에 보고된 장기 종합 교육 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의 '1980년대의 교육 계획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관한 건의'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조사, 여론 조사를 거쳐 1970년 초에는 "①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킨다. ②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③ 교과 편제를 재조정하여 '반공·도덕 생활'을 도덕과로 하여 교과화한다. ④ 학년별 주당 시간을 증배한다."는 개편 방침을 세우고 초안을 작성하게 하여, 교육과정 심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한 것을 여론 조사 후 다시 각급 심의회에서 조정하여 1971년 1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편의 준비로서 교육과정 전문가 및 편수관을 포함한 78명에 의한 제2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중학교 240개교를 비롯한 교육 연구기관, 교육 행정 기관 75개소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과 여론 조사에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1971년 9월 교과별 요소표를 심의하고, 이어 원안 집필에 들어가 1971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몇 차례의 심의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편수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거치는 등 종합·조정 절차를 거쳐 1973년 5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중학교 326개교를 비롯하여 3개의 교육 연구 기관, 전국 시·도 교육 위원회 및 27개 대학 전문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통하여 의견을 듣는 한편, 각계 인사 400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밝힌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는 ① 국가·사회적 배경에서 국제 사회의 제반 변화에 대처하는 국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② 기술의 급격한 진보, 지식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지식 내용의 정리 및 구조화로 활용 능력의 배양을 필요로 하며, ③ 평준화 이후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전문 위원과 편수관의 합동 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하고, 교육과정 심의회의의 종합 심의를 거쳐 1973년 8월 31일 문교부령 제325호로 공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사조에 의하여,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을 강력히 주장한 브루너(Bruner, J. S.)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곧 ‘각 교과에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즉, 구조)을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제3차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이 기본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는 자아실현(개인면)과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사회면)를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에 제시된 정신을 중학교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각 영역에 대한 내용과 활동의 선택, 구성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 방침을 제시하였다.

- ① 중학교의 독자성과 초등학교와의 보다 밀접한 연계성 고려
- ②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가치관 확립
- ③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과 진로 선택을 위한 탐색 활동 기회 부여
- ④ 교과 및 특별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내용 정선

1973년 8월 31일 문교부령 제325호로 공포된 중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문교부, 1973)

과정 \ 학년			1	2	3
도덕			70(2)	70(2)	70(2)
국어			140(4)	175(5)	175(5)
국사				70(2)	70(2)
사회			105(3)	70~105(2~3)	70~105(2~3)
수학			140(4)	105~140(3~4)	105~140(3~4)
과학			140(4)	105~140(3~4)	105~140(3~4)
체육			105(3)	105(3)	105(3)
음악			70(2)	35~70(1~2)	35~70(1~2)
미술			70(2)	35~70(1~2)	35~70(1~2)
한문			35(1)	35~70(1~2)	35~70(1~2)
외국어			140(4)	70~175(2~5)	70~175(2~5)
실업	필수	기술(남), 가정(여)	105(3)	105(3)	105(3)
가정	선택	농·공·상·수산·가사 중 택 1		105~140(3~4)	105~140(3~4)
총 이수 시간			1120(32)	1120~1225(32~35)	1120~1225(32~35)
특별 활동			70~(2~)	70~(2~)	70~(2~)

제3차 교육과정은 체제 면에서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제2차 교육과정보다 단순화되고 체계화되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목표는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 학년 목표를 진술하고 있어 그 위계와 체계가 분명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제 면에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영역, 특별 활동 영역, 그리고 반공·도덕 영역 등 3개 영역이었던 것이, 제3차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편제에서 「반공·도덕」 영역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독립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반공·도덕 생활」이 도덕 교과로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품성을 기르기 위한 배려를 모든 교육 활동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는데, 여기서 「도덕」과와 「국사」과의 신설은 국민적 가치관의 확립과 반공 교육의 방법 전환 및 체계적인 지도,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발전적 사관 확립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으나, 도덕 생활이 지식 전달로 가능할 것인지, 교과로 독립한 국사 교육이 국수주의적 역사관과 비타협적 사고를 가진 인간을 양성하지는 않을 것인지 등의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덕성과 합리성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선행 연구가 도덕과의 독립을 뒷받침했으며, 민족 사관을 확립하고 주체성을 고양한다는 의미에서 국사과의 독립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실업·가정」과에서 여자 기술을 「가정」으로 개칭하고, 가정(선택)을 「가사」로 개칭했다. 교과는 원칙적으로 12개 교과 모두를 필수로 하고, 일부 과목(실업·가정)을 선택으로 한 것은 제2차 교육과정과 같다.

중학교의 경우 시간 배당 면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주 단위로 최소시간과 최대시간으로 이수 범위를 설정한 데 비하여,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 「국어」, 「국사」와 1학년 전 과목의 이수 시간을 고정하고, 전 교과목의 시간 배당을 연간 총 이수 시간으로 표시하여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과목별 시간 배당에서는 「실업」, 「가정」, 「음악」, 「미술」과의 시간이 조금씩 줄었다.

운영 지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도덕 교육, 국사 교육, 체육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학교의 경우와 같이 도덕 교육은 도덕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 기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강 증진, 보건 위생, 체력 향상, 안전 교육도 체육과의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전개되도록 하였다.

기준 시간의 표시는 국민학교의 경우와 같이 단위 수업의 길이를 45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절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40분 또는 50분도 가능하며 연간 평균은 45분이 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에 한한 것이어야 하였다.

6. 제4차 교육과정(1981)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442호 제정, 고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87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7-7호로 개정된 중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했던 교육과정이다.

1973년과 1974년에 개편을 본 교육과정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왔지만, 새 공화국 출범을 맞이한 1980년대 초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한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정부는 이미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81년 말에 고시할 예정인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1980년 10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을 위해 종래의 교육 방송 및 기초 교육 연구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연구, 업무 영역의 정관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계 연구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1978년부터 교육과정 기초 연구에 착수하고 있었다. 문교부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을 위탁할 당시에는 새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초 연구를 끝내고 많은 보고서를 낸 바 있어,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연구·개발(R&D)형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새 정부가 국정 지표로 밝힌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 사회의 건설에서 조명되는 미래 사회를 민주사회, 고도 산업 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사회, 통일 조국으로 전망하고, 이 사회에 기대되는 인간상인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데 부합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강화, 과학 기술 교육의 심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고 있다.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고시된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7〉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문교부, 1981)

과정			학년	1	2	3
교과 활동	도덕			68(2)	68(2)	68(2)
	국어			136(4)	170(5)	170(5)
	국사				68(2)	68(2)
	사회			102(3)	68~102(2~3)	68~102(2~3)
	수학			136(4)	102~136(3~4)	102~136(3~4)
	과학			136(4)	102~136(3~4)	102~136(3~4)
	체육			102(3)	102(3)	102(3)
	음악			68(2)	68(2)	34(1)
	미술			68(2)	68(2)	34(1)
	한문			34(1)	34~68(1~2)	34~68(1~2)
	외국어	영어		136(4)	102~170(3~5)	102~170(3~5)
	실업 · 가정	필수	생활 기술(남)	102(3)	136~204(4~6)	택 1~2 170~238(5~7)
			가정(여)			
		선택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자유 선택			0~34(0~1)	0~34(0~1)	0~34(0~1)	
계			1,088~1,122 (32~33)	1,088~1,156 (32~34)	1,088~1,156 (32~34)	
특별 활동			68~(2~)	68~(2~)	68~(2~)	
총 계			1,156~1,190~ (34~35)~	1,156~1,224~ (34~36)~	1,156~1,224~ (34~36)~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된 편제에는 변함이 없으나, 교과 활동의 실업·가정 교과에서 필수인 생활 기술(남), 가정(여) 과목을 3학년에서 제외시키고, 2, 3학년에서 1과목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던 농·공·상·수산업과 가사를 3학년에서만 이수하도록 하여, 2학년과 3학년에서 1개 과목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은 중학교교육의 보편화 경향에 따라 기초 교과목의 비중을 다소 강조하게 되었고, 모든 교과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직업 교육의 성격이 강한 실업·가정과 비중이 그만큼 약화된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교과 활동에서 ‘자유 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하게 한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특별 활동은 학습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4개 영역에서 학급 활동을 학생회 활동에 통합하여 3개 영역으로 줄여 편성하였고, 학생회 활동과 클럽 활동에 각 1시간씩 시간을 배당하고, 학교 행사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에서는 2, 3학년에서 주당 총 이수 시간을 1시간 정도 축소시키고(32~35시간→32~34시간), 음악, 미술 교과의 이수 시간을 2, 3학년에서 주당 1~2시간에서 1, 2학년 2시간, 3학년 1시간으로 고정시켜 예능 교과의 시간을 축소 한도 확보하도록 하였다.

운영 지침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계획, 지도, 평가, 기타로 분리 조직하여 교육과정의 조직자, 지도자가 방향, 방법,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에서 신설된 내용은 국민정신 교육과 언어생활 지도의 강조, 소질과 취미의 신장, 자유 선택 과목 운영 계획 등에 관한 것이었다. ‘지도’에서는 탐구 활동을 통한 개념 및 원리의 이해,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 타파, 표현 기회의 확대, 심신 장애 및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평가’ 지침이 신설되어 평가의 방법, 유의점이 신설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구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두고 있던 고등 공민 학교 교육과정과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흡수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단일화시킨 것도 교육과정 체제상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7. 제5차 교육과정(1987)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1988년에 걸쳐 개정된 문교부 고시 제87-7호, 제87-9호, 제88-7호인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1992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1992-11호로 개정된 중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했던 교육과정이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한다거나, 학문적 경향의 변화에 따른다는 비교적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제5차 개정 때에는 이러한 명분이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명분보다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이 5~7년을 넘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이유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은 그 구성의 방향에서 “……지식의 급격한 팽창과 과학의 발달에서 오는 고도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관계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굳건한 바탕 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현명하게 주도하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제5차 교육과정이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의 특성을 지닌 21세기 고도 산업 사회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고, 복지 국가 건설과 조국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제5차 교육과정은 개정의 중점을 기초 교육의 강화(초등학교에서의 기초 기능 교과 강화: 국어·산수 교과의 강화, 중학교에서의 기초 과학 교육의 강화: 수학·과학 교과의 이수 시간 증대, 기본적 실험·실습 중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주체성, 창조성, 사고력, 판단력, 정보 처리력 및 활용력 등을 기르기 위하여 각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에서 교육 내용의 선택과 소재의 선정, 배열을 정보화 사회의 성과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컴퓨터 교육, 경제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 또는 강화), 특별 활동의 강조(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의 훈련, 다양하고 풍부한 인격 형성에 필요한 특별 활동 본연의 영역 외에 학교 활동에서의 생활 지도 영역의 포함 및 학급 활동 영역의 내용 강화), 특수 학급 운영 지침 명시(교육 기능 정신박약아, 약시, 난청 등 특수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 근거 마련),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국민정신, 환경, 성, 경제, 컴퓨터, 해양 교육 등)의 체계적인 반영 등에 두었다.

1987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7-7호로 고시된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문교부, 1987)

과정		학년	1	2	3
교 과 활 동	도덕		68(2)	68(2)	68(2)
	국어		136(4)	170(5)	170(5)
	국사			68(2)	68(2)
	사회		102(3)	68~102(2~3)	68~102(2~3)
	수학		136(4)	102~136(3~4)	102~136(3~4)
	과학		136(4)	102~136(3~4)	102~136(3~4)
	체육		102(3)	102(3)	102(3)
	음악		68(2)	68(2)	34(1)
	미술		68(2)	68(2)	34(1)
	한문		34(1)	34~68(1~2)	34~68(1~2)
	외국어(영어)		136(4)	102~170(3~5)	102~170(3~5)
	실업 · 가정	기술	택 1 102(3)	택 1 136~204(4~6)	택 1 136~204(4~6)
		가정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자유 선택		0~6(0~1)	0~68(0~2)	0~68(0~2)	
계		1,088~1,156 (32~34)	1,088~1,156 (32~34)	1,088~1,156 (32~34)	
특별 활동		68~(2~)	68~(2~)	68~(2~)	
총 계		1,156~1,224~ (34~36)~	1,156~1,224~ (34~36)~	1,156~1,224~ (34~36)~	

- ① 이 표에 배당된 총 시간 수는 연간 최소 시간이고, ()안의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평균 시간이다.
 ② 단위 수업의 시간은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③ 실업·가정과 기술, 가정, 기술·가정 과목은 남자 및 여자 학교, 남녀 공학에 관계없이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제5차 교육과정의 편제는 제3차 교육과정 이래의 교육과정 편제와 다름없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었다. 교과 활동을 12개의 교과로 편성하고 있는 것도 전과 다름이 없으나, 실업·가정과에서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이 신설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남자만 이수하는 과목(기술), 여자만 이수하는 과목(가정)을 분리하는 것은 남녀간의 능력 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남녀평등 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한 것이었다. 즉, 교육과정 연구 개발 작업 과정에서 기술(남), 가정(여) 과목을 없애고 기술·가정 과목(남녀 공통 이수)을 신설하려 했던 처음의 의도가 가정 과목을 고수하는 그룹(주로 가정과 교육 종사자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타협안으로서 종래의 기술(남), 가정(여) 과목을 그대로 두고 남녀 공통 이수의 기술·가정 과목만을 신설하여 3과목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시간 배당은 기초 과학 교육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3학년의 수학 및 과학과의 시간을 주당 1시간씩 증가시키고, 실업·가정과의 시간을 1시간 줄였다. 또한, 교과 활동에서 달라진 것은 자유 선택 시간의 확대이다.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학교장의 기본 철학에 의하여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활동이나 특정 교과목(편제 외의)교육을 위해 사용할 자유 선택 시간의 폭을 학년별로 주당 0~1시간에서 0~2시간으로 확대하여 학교장 재량의 폭을 확대시켰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 활동도 더욱 강화되었다. 합리적 의사 결정, 합의 존중, 민족적 생활 태도 함양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특별 활동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합의하여, 제4차 교육과정에서 학생회 활동에 포함되어 있던 학급회 활동을 분리시켜, 그 활동을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4개 영역으로 하였고, 학교교육에서의 생활 지도 관련 내용을 특별 활동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운영 지침에 나타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지도, 평가 등을 살펴보면, 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기본 방침으로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다. 즉, 이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계획'에서는 지금까지 교육법시행령 제62조의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고, 제61조의 규정을 근거로 학기당 수업일수를 1학기 18주, 2학기 16주로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어, 수업 일수 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하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

시간 배당의 주당 평균 시간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재량을 넓혀 주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 제4차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국민정신, 통일 안보, 경제, 안전, 환경, 진로, 인구, 성교육 등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되, 관련 교과에서 강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각 교과 내용 구성에 참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지도’에서 달라진 것으로는, 심신 장애 학생(시각, 청각, 정신 지체 등)과 학습 부진 학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 규정을 두어 학교에 특수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교과서는 최소 시간 기준으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교과서 편찬의 준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습 지도에서는 최소·최대 시간에 따라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규정상 제4차 교육과정 때와 달라진 것은 없으나,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교 실정과 학생의 수준 및 지역 사회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교육과정의 시행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상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정 구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지역 수준에서의 편성 지침이 있어야 하고, 이에 기반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교원 연수, 교육과정 관계 해설서, 교과서 편찬 등에서 강조되었다.

운영 지침의 평가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 “의도된 교육 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되, 의도되지 않았던 성과에 대해서도 유의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상식 수준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이유 때문에 삭제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운영 지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특수 학급 설치·운영 지침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과 체육 중학교와 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을 해당 교육감의 승인 하에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등이다.

8. 제6차 교육과정(1992)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부고시 제1992-11호, 제1992-16호, 제1992-19호로 고시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고시 제1997-15호로 개정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한 교육과정이다. 제6차 교육과정은 20세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이라는 특별한 시대적 의무를 지니게 되고, 기초·보통교육의 교육 내용 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90년 3월부터 교육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에서 우선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 및 협력 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 6월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연구책임자: 동국대 교수 한명희)를 구성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위탁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는 39명의 학자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교육부 편수 담당자 43명, 현장 교원 411명, 교수 41명, 기타 전문가 26명 등 총 521명의 협의·자문진이 참여해서 1991년 11월까지 계속되었다.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 대표 세미나(230명 참가), 전국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2회, 112교),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530명 참가), TV 공개 토론회(3회), 신문지상 토론 및 보도(126회),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조사(시·도 교육청, 교원 양성 대학, 연구 기관, 연구 학교, 관련학회 등 60개 기관)가 실시되어 각계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 기관을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총론 개정 시안은 다시 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에 회부되어 면밀하게 심의되었다(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 16개 위원회, 심의위원 361명, 2회 심의 실시)·심의를 마친 시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현장 교원 등과의 합동 집중 작업, 교육부 편수 담당자의 최종 집중 작업을 거쳐 1991년 12월 28일에 제6차 교육과정의 총론이 먼저 확정되었다.

다음으로 각 교과별 교육과정(각론) 개정 연구는 제1차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전통적 기본 교과에 대한 개정 연구가 1991년 5월에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었다. 기본 교과의 각론 연구가 총론 확정 전에 위탁된 것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귀납형과 연역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로서 교과 편제 연구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의 상호 작용과 협동 연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러한 5개의 기본 교과 외에 기타 교과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각 교과 교육 전문 연구 기관(12개 기관)에 개정 연구를 1991년 10월에 위탁하여 1992년 4월말까지 추진되었다.

교과별 각론 개정 연구에는 교수, 연구원, 현장 교원, 교육부 편수 담당자 등 55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협의진 1,218명, 자문진 178명을 합해 1,946명의 교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교육부에서는 개정 연구 결과를 접수하여, 19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23분과, 2,930명 참가)를 실시하였고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개정 시안을 송부하여 검토 의견(179개교, 8,134명 검토)을 종합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 91개 기관에도 개정 시안을 보내어 검토를 의뢰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각 학교 급별, 교과별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159개 위원회, 심의 위원 2,512명)에 개정안을 회부하여 2~3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문적인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교과 교육 전문가 및 현장 교원(769명)의 합동 집중 작업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다시 교육부 편수 담당자의 최종 정리 작업이 있었으며, 수정·보완된 개정안은 다시 교육과정 심의회(학교 급별 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되었다.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된 교육과정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 관계자의 종합 검토회(1992. 9. 4.)와 시·도 교육청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관계자의 검토회를 가졌다(1992. 9. 17.).

이상과 같은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검토, 수정, 보완 정리 작업을 거쳐 1992년 6월 30일에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1호)을 고시하였고, 1992년 9월 30일에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5호)과 초등학교 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6호)을 고시했으며, 1992년 10월 30일에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2-19호)의 고시를 끝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 인간상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 하에서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 교육 이념과 목적, 교육 방침을 기초로 하였고, 둘째, 21세기 한국의 사회상과 교육적 필요에 비추어 요구되는 인간상을 고려했으며, 셋째,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 특성과의 연계성 유지를 고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설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인간상은 다원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단일 가치를 지향하지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의 공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다원주의 가치 체계가 포괄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설정되었으며 보편성의 신념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교육 목표(이념), 내용(행동), 운영(방법), 제도(체제)등의 네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1992년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로 고시된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교육부, 1992)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필수교과	도 덕	68	68	68
	국 어	136	170	170
	수 학	136	136	136
	사 회	102	102	102
	과 학	136	136	136
	체 육	102	102	102
	음 악	68	34~68	34~68
	미 술	68	34~68	34~68
	가 정	68	34	34
	기술 . 산업	34	68	68
	영 어	136	136	136
선택교과	한 문	34~68	34~68	34~68
	컴 퓨 터			
	환 경			
	기 타			
특별 활동		34~68	34~68	34~68
연간 수업 시간 수		1,156	1,156	1,156

① 이 표는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임.

② 단위 수업의 시간은 45분을 원칙으로 함.

- 연간 34주 기준 : 교육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중학교의 수업 일수 220일에서 학교 행사 등 각종 특별 활동 시간 확보를 고려하여 교과 활동을 34주 이상 실시하는 것이 적정함을 의미 함.
- 연간 최소 시간 : 연간 최소한 이수하여야 할 의무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학교 수업 일수를 220일 이상 확보하거나, 교육과정 이수 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미함.
- 단위 수업의 시간은 45분 : 평균 수업 시간은 45분을 기준으로 하나, 과목에 따라서는 연속 · 분리 수업이 가능하며, 계절에 따라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야간 학교 등 특수한 경우에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을 의미함.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은 편성과 운영에는 ① 교육과정의 성격, ②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③ 편제, ④ 시간 배당 기준, 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특별 활동에는 필수 교과(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가정, 기술·산업, 영어)와 선택 교과(한문, 컴퓨터, 환경) 및 특별 활동의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법에 중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는 중학교의 교육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구성하고, 교과는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로 하였다. 선택 교과 신설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적·개인적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라 하겠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에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구분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평가와 기타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제시하였다.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편성·운영 지침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 전 학년의 학습 부담 감축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 수를 현행 주당 평균 34~36시간에서 34시간으로 감축하였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업 시간 수를 연간 시간 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목을 통폐합 조정하여 필수 교과를 13개에서 11개로 축소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구조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사회과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사회(지리, 세계사, 공민)와 국사의 2개 교과로 설정된 것을 통합(지리, 세계사, 공민, 국사)하였으며, 실업·가정과는 제5차 교육과정의 기술, 가정,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등 8개 과목을 ‘가정’과 ‘기술·산업’ 2개 교과로 조정하여 남녀 공통으로 이수하게 하고, 수학, 과학과는 학습 분량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실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선택 교과제를 도입하였다. 시대적·사회적·개인적 교육 요구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선택 교과는 한문, 컴퓨터, 환경과 그 밖에 필요한 교과를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설정하여 전 학년 주당 1~2시간 정도 운영하게 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였다. 종전에는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만이 각 학교에 직접 전달되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국가 수준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이 국가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당해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편성·운영을 지도하며, 각 학교는 국가 기준과 시·도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과별, 학년별 수업 시간 수 제시 방식을 종래의 연간 시간과 주당 평균 시간 병행 제시에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시간만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1학년에서는 수업 시간을 고정하고, 2학년에서는 6개 교과, 3학년에서는 8개 교과에 걸쳐 수업 시간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사실상 최소 시간의 합계가 34시간이나 되어 최대 시간을 택할 수 있는 교과는 두 개 교과에 불과하여 그 의미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2, 3학년의 음악, 미술 교과와 선택 교과를 제외한 전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고정된 표준 수업 시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최소 기준만을 제시한다는 방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 및 학교는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지역과 학교의 실정·계절·기후·교육 여건·교과 특성·학생 실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수업 시간을 월별, 주별로 합리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9. 제7차 교육과정(1997)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교육 체제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려고 ①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 개혁 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골격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는 1996년 2월 9일에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시하였고, 세부 개정 지침으로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 설정’ 등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 ②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독서 교육 강화’, ‘교과 교육에서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주요 지침, ④ ‘선택 과목 도입에 따른 수능 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확대 및 교과서의 질 제고’, ‘다양한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 등 지원 체제 확립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는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 전망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다루

어 온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을 요구하였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1996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체제·구조 개선 기초 연구,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정 요구 조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학교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데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교육 목표 실현에 더욱 중요한 변인이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997년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된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중학교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교육부, 1997)

구분		학교	중학교		
		7	8	9	
교과	국 어	170	136	136	
	도 덕	68	68	34	
	사 회	102	102	136	
	수 학	136	136	102	
	과 학	102	136	136	
	실 과	68	기술 · 가정		
			102	102	
	체 육	102	102	68	
	음 악	68	34	34	
	미 술	34	34	68	
	외국어 (영어)	102	102	136	
재 량 활 동		136	136	136	
특 별 활 동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 수		1,156	1,156	1,156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 편제의 조정과 학생·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량 활동의 신설’에 개정 중점을 두었다. 중학교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교육적인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년별로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의 재량 활동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재량 활동 시간은 학년별 136시간(주당 4시간)으로 교과 재량 활동에 102시간, 창의적 재량 활동에 연간 34시간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교과 재량 활동은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정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정’, ‘기술·산업’ 교과를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하여 남녀 공통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였다.

셋째,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외국어’ 과목을 신설하

였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7과목을 신설하여 재량 활동을 활용하여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재량 활동의 신설에 따라 각 교과에 배당되는 수업 시수는 전반적으로 감축·조정되었다.

다섯째,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를 조절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별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6차의 경우 연간 34~68시간(주당 1~2시간)이던 것을 연간 68시간(주당 2시간)으로 하였다. 여섯째, 학교급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교과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군 개념의 도입에 따라 교과 편제의 제시 순서도 일관성 있게 조정하였다.

10.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97. 12. 30.)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내용 및 내용 체계 개편이 필요성에 의거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과학·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 및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인 대처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제 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과 교육내용의 개선(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 학교급·학년·교과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일부 조정('06. 3월부터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 등의 필요로 인하여 교육과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철학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 기본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2007년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b).

-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부여
-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 과학교육 및 역사교육 강화 등
-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 선택 과목 일원화 및 과목군 조정 등
-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 추진
 -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 학교 급·학년·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
- 수업 시수 일부 조정
 - 현행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 조정 등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학교 자율로 감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의 1/1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감축이 없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당 1시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총 34시간 감축). 학교 자율로 감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량·특별활동 중심의 감축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이

약화되거나, 학교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이 제시되었다. 즉, 초등학교와 고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하게 하고, 중1학년~고1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수업 시수가 일부 조정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교육인적자원부, 2007a)

구분	학교 학년	중 학 교		
		7	8	9
교 과	국 어	170	136	136
	도 덕	68	68	34
	사 회	사 회		
		102	.	68
	수 학	역 사		
		.	102	68
	과 학	136	136	102
	과 학	102	136	136
	실 과	기술·가정		
		68	102	102
	체 육	102	102	68
	음 악	68	34	34
과	미 술	34	34	68
	외국어 (영어)	102	102	136
	재량 활동	102	102	102
	특별 활동	68	68	68
	연간 총 수업시간 수	1,122	1,122	1,12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의 종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의 종류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사회’ 교과 내에서 중등 ‘역사’ 과목(국사+세계사)을 독립시키고 고등학교 1학년 역사 과목 수업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교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것은 재량활동의 운영이다. 재량 활동 운영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만 운영하도록 하고, 중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활동 3시간, 창의적재량활동 1시간으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통합하고 1시간 감축 하여²⁾ 총 재량활동 3시간으로 설정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교과심화보충 4~6단위, 선택 과목 4~6단위,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로 구분되어 있던 것(총 12단위)을 통합하고 6단위를 감축 하여³⁾ 총 6단위로 설정되었다. 중·고교 재량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기준은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였다.

11.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며,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등의 기본 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총론 문서가 고시되면 그것에 입각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던 다른 개정과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총론부터 먼저 적용되었다. 2011년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은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고시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통 교육과정 기간 축소 및 선택 교육과정 기간 확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을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축소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 체제가 도입·확대 실시된다. 또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개칭된다. 이와 같이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한 것은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 및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이것은 토요일휴업일로 인한 34시간 감축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다.

3) 재량활동 6단위 감축은 사회 34시수 증가, 과학 34시수 증가, 토요일 휴업일 운영으로 인한 34 시수 감축으로 인한 것이다.

2) 학년군 및 교과군 설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군별 총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하 <표 12>와 같이,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중학교는 1~3학년으로, 고등학교는 1~3학년으로 묶여 총 수업시수가 배정되었다.

<표 12> 학년군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교과(군)은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 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 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로 아래와 같이 재분류되었다.

<표 13> 중학교 교육과정 : 8개 교과(군)으로 구성

10개 교과 및 교과재량활동 의 선택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과목
↓						↓					
8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기술 · 가정		체육	예술(음악/ 미술)		영어	선택

3) 교과(군)별 20% 범위 내 수업 시수 자율 증감 허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수업 시수의 성격을 ‘연간 최소 수업 시수’에서 증감이 가능한 ‘기준 시수’로 전환하여 각 학교로 하여금 교과 수업 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 시수의 증감 범위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에서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한 학기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하는 교과 집중이수 시행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8개 이내’ 및 ‘교과 집중이수’를 통해서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 수를 줄여 학습을 적정화하고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다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 교과목 중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과외 활동, 즉 5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특별활동과 2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재량활동이 통합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되고 시수도 확대된다(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성격과 하위 활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성격과 하위 활동(교육과학기술부, 2011c)

영역	성격	활동
자율 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적응 활동 • 자치 활동 • 행사 활동 • 창의적 특색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 학술 활동 • 문화 예술 활동 • 스포츠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봉사 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교내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자연환경 보호 활동 •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 자기 이해 활동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활동 • 진로 체험 활동 등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의거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베트남어 및 해당 과목 추가(교육과학기술부, 2011a), 총론의 학교 급별 편제와 이수조정, 인성 교육 요소 강화, 방송통신 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처음 고시된 이후 교육부 고시 제2013-7호까지의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현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	베트남어 교육과정 신설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나. 고교 교과 편제 수정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사회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목 및 실용경제 과목 신설, 일반과목의 증감 운영 변화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인성 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 신설
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8.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일반고 자율성 강화 및 역사 교육·논술 교육 강화 등

출처: 이미숙 외(2013: 9)

이하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처음 고시될 때 제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의 기본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후 몇 차례에 걸친 수시 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 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총론 문서인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부분 개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2011년 8월 9일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그에 따른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후속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고등학교 교과 편제(보통 교과, 전문 교과)를 수정 고시함으로써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 2) 2012년 3월 21일에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보통 교과와 탐구교과 영역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 일반 과목에 ‘사회’를 신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생활·교양교과 영역 교양 교과(군) 일반 과목에 ‘실용 경제’를 신설하고, 과목 선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2012년 7월 9일에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총론 및 일부 교과 교육과정(국어, 사회, 도덕)을 개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학교 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의 필요성이 날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더불어 체육 활동의 효과에 주목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신설하였다.
- 4) 2012년 12월 7일에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2항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c).
- 5) 2012년 12월 13일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육을 강화했다.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배운 능력을 졸업 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구분하고, 각각 단위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d).
- 6) 2013년 12월 18일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고 필수 이수 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했다. 또한 과목별 이수단위를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한국사’를 6단위 이상 이수하고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필수이수 기준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육 필수 이수 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중학교에서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제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교육부, 2013)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하는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이며, 1시간 수업은 45분이다.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택 교과는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이며,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별 교과 집중이수로 인하여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중학교 교육과정 변천 과정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중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구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특징
교육에 대한 간급 조치 (1945)	•일반 명령 제6호 •법령 제4호	•1945. 9. 17. •1945. 9. 29.	•1945. 9. 29.	○ 조선 국호 사용 - 교수 용어 국어사용 -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와 실습 금지 - 교과: 공민, 국어, 지리·역사, 수학, 물리·화학·생물,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교수 요목의 시기 (1946)	•중학교 교수 요목	•1946. 9. 1. 시달	•1946. 9. 1.	○ 교수 요목: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 교사가 학생 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 ○ 초급 중학교 교육과정 발표(1946. 9. 20.) - 공민, 역사, 지리 통합: 사회생활 - 체육, 보건 통합: 체육·보건 -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 (1954)	•문교부령 제35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1954. 4. 20. 제정 공포	•1954학년도	○ 교육과정: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편제: 교과, 특별 활동 - 교과 •필수: 국어, 수학, 사회생활,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업 가정 •선택: 실업 가정, 외국어 - 연간 시간으로 제시하면서 주당 시간 수는 팔호 안에 제시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문교부령 제45호 '중학교 교과 과정'	•1955. 8. 1. 제정 공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교과 중심 교육과정 - 교과별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 (1963)	•문교부령 제120호 '중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개정 공포	•1965. 3. 1.	○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의 강조 - 편제: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 - 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 연간 35주 기준, 1시간의 45분 단위 - 주당 수업 시간 제시

구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특징
	•문교부령 제251호	•1969. 9. 4. 부분 개정 공포	•1970. 3. 1.	○ 국민 교육 헌장 이념 구현 ○ 한글 전용: 국어과에서 한자, 한문 지도 내용 삭제 ○ 반공·도덕: 주당 1시간 → 2시간으로 증배 ○ 남녀 공통 필수 기술 과목 신설
	•문교부령 제300호	•1972. 5. 8. 부분 개정 공포	•1973. 3. 1.	○ 한문 교과 신설: 주당 1~2시간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 (1973)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73. 8. 31. 개정 공포	•1974. 3. 1.	○ 학문 중심 교육과정 -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시 ○ 국민 교육 헌장의 이념 구현 -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 편제: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12 교과 - 도덕 교과 신설 - 국사: 교과로 독립 - 35주 기준 연간 수업 시간 수 제시
	•문교부 고시 제424호 '중학교 교육과정'	•1979. 3. 1. 고시	•1979. 3. 1.	○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의 개선 - 문교부령(법규 문서)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형태로 개선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부분 개선의 필요에 대처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1)	•문교부 고시 제442호 '중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개정 고시	•1984. 3. 1.	○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 -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과 조화 - 교육과정: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건전한 심신의 육성 - 지력과 기술의 배양 -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 -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구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특징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 편제: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12교과 - 실업·가정 • 생활 기술(남), 가정(여): 필수로 1, 2학년 이수 •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3학년에서 선택 이수 - 자유 선택: 주당 0~1시간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7)	• 문교부 고시 제87-7호 '중학교 교육과정'	• 1987. 3. 31. 개정 고시	• 1989. 3. 1.	○ 홍익인간의 이념 구현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체제, 구조의 개선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교육 목표, 편제, 시간 배당 - 운영 지침: 계획, 지도, 평가, 기타 -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목표, 내용, 유의점 - 교과 수: 12교과 - 실업·가정 • 기술·가정 과목 신설 - 자유 선택: 주당 0~2시간, 학교장 재량 폭 확대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 (1992)	•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 1992. 6. 30. 개정 고시	• 1995. 3. 1.	○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 ○ 교육과정 개정 중점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 교육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 시·도 교육청: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성격 -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 ○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

구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특징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개발 -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 다양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교육과정 체제·구조의 개선 - 교육과정의 성격, 구성 방침, 편제, 시간 배당 기준 -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편성·운영, 평가, 기타 - 교과와 특별 활동 구성 체제 개선: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강조 - 교과서 중심 →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교과 편제의 합리적 조정 - 국사: 사회 교과로 통합 - 실업·가정: 8개 과목을 가정, 기술·산업 2개 과목으로 조정, 남녀 공통 이수 ○ 선택 교과제 도입 - 한문, 컴퓨터, 환경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 (1997)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 12. 30. 개정 고시	•2001. 3. 1.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 학교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교육과정 개정 중점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구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특징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정보화 사회에 대비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2006. 8. 29. 부분 개정 고시	•영어, 수학 교육과정 시행 •2009. 3. 1. - 1학년 •2010. 3. 1. - 2학년 •2011. 3. 1. - 3학년	◦ 수준별 수업 권장, 강화 - 단계형, 심화보충형이라는 유형 삭제 - 교육과정에서의 기본 학습 내용 정선 - 수준별 교육 관련 지침 대강화 - 수학, 영어 교과서 내실화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개정 고시	•2010. 3. 1. - 1학년 •2011. 3. 1. - 2학년 •2012. 3. 1. - 3학년	◦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 ◦ 주요 개정 내용 - 월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중 1~3 학년 각 1,156시간→1,122시간으로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 재량 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중학교: 주당 교과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 재량활동 3시간으로 ◦ 중·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 역 추가 -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2. 23. 개정 고시	•2011. 3. 1. - 1학년 •2012. 3. 1. - 2학년 •2013. 3. 1. - 3학년	◦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 주요 개정 내용 - 공통 교육과정 기간 축소 및 선택 교육과정 기간 확대

구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행	특징
				- 학년군 및 교과군 설정 - 교과(군)별 20% 범위 내 수업 시수 자율 증감 허용 - 한 학기 이수 과목 수 축소를 통한 교과 집중이수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 8. 9. 수시 개정	•2013. 3. 1. - 1학년 •2014. 3. 1. - 2학년 •2015. 3. 1. - 3학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 7. 9. 수시 개정	•2013. 3. 1. - 1학년 •2014. 3. 1. - 2학년 •2015. 3. 1. - 3학년	○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개정 - 교육과정 총론과 일부 교과 교육과정(국어, 사회, 도덕) 개정 - 집중이수 지침 수정(체육, 예술 교과목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 - 교과(군)별 20% 범위 내 시수 증감 허용 교과에서 체육과 예술 제외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학년별 연간 34~68시간 (총 136시간)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	•2012. 12. 7. 수시 개정	•2013. 3. 1. - 1학년 •2014. 3. 1. - 2학년 •2015. 3. 1. - 3학년	○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 신설 - 방송통신중학교 편제와 단위배당기준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7호	•2013. 12. 18. 수시 개정	•2014. 3. 1. 입학생부터 시행	○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1c).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26].
- 교육과학기술부(201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2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2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2d).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별책 1].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1].
- 교육부(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7호[별책 1].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 교육부(2015c).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42].
- 교육부(2015d).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보도자료(15. 11. 25.).
- 교육부(2015e).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
- 교육인적자원부(2007b).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제8차 국민대토론회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2009. 7. 24.
- 김경자 외(2015a).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총괄). 교육부.
- 김경자 외(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 문교부(195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문교부령 제35호.
-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20호.
- 문교부(197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
- 문교부(1981).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별책 3].
- 문교부(1987).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
- 미래창조과학부(2014). ‘국가융합기술 발전전략. 보도자료(14. 3. 4.).

민용성, 정민주, 문영주, 이태상, 조규판, 최병택(2009).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6.

박순경 외(2007). 초·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RC 2007-11.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1.

이미숙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증보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1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2013). PISA 2015 draft science framework. Retrieved April 27, 2015, from <http://www.oecd.org/pisa/pisaproducts>.

〈참고 사이트〉

국가 교육과정 정보 센터(NCIC) <http://www.ncic.go.kr/>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jsp/knise/index.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학교 알리미 서비스 <http://www.schoolinfo.go.kr/>

NEIS 학부모 서비스 <http://www.neis.go.kr/>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기 획]

남부호(교육부) 김대원(교육부)
이상수(교육부) 김승환(교육부)
박윤혁(교육부) 최영선(교육부)

[집 필]

한혜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주연(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광하(서울 원목고등학교)
한충희(대구 심인중학교)
황유진(서울 연화중학교)

발행일 2017년 2월

발행처 교육부

인 쇄 태백종합인쇄공사 054-242-3377